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4~2025년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2026. 0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 간 사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지구 구현이라는 거대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한 인류사적 고민에 동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다져 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8조 및 제10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서울시의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서울시민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6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 조례가 규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4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2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20~ 2024년)’의 최종 연도인 2024년 실적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2025~ 2029년)’의 첫해인 2025년 실적을 동시에 점검한 전환기적 평가 보고서입니다. 제2차 계획은 ‘2030 지속가능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4대 전략, 17대 과제,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사업, 108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었고, 제3차 계획은 ‘함께 만드는 변화, 지속 가능한 서울’을 비전으로 4대 전략, 17대 과제, 59개 이행과제, 68개 세부사업 및 68개 성과지표로 재편되었습니다. 특히 제3차 계획은 기달성 지표의 정리, 부적합 지표의 교체, 중복지표의 통합, ESG 경영·기후테크·고령자 고용 등 새로운 정책 수요의 반영을 통해 성과지표 체계를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개요, 평가 동향, 평가 목적과 방법, 제2차·제3차 계획의 주요 내용과 변화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2024년 제2차 이행계획의 최종 연도 추진실적과 2025년 제3차 추진계획의 초년도 추진실적을 과제별로 점검하고, 지표별 달성 여부와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2차 계획의 5개년 총평과 제3차 계획의 초년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은 결어로, 지속가능발전이 서울 시정의 핵심 원칙으로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2024년 제2차 이행계획의 최종 점검에서는 108개 성과지표 중 달성 73개, 일부달성 25개, 미달성 8개, 통계치 미집계 2개로 나타나 목표 달성률은 67.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78%, 2021년 68%, 2022년 70%, 2023년 69.5%와 비교할 때 계획 최종 연도임에도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분야별로는 환경 분야가 32개 지표 중 25개를 달성하여 78.1%로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였고, 경제 분야는 24개 지표 중 15개 달성으로 62.5%, 협력 분야는 24개 지표 중 15개 달성으로 62.5%를, 마지막으로 사회 분야는 28개 지표 중 18개 달성으로 64.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는 2023년 69%에서 2024년 78.1%로 상승했지만, 사회·경제·협력 분야는 전년 대비 하락하여 분야별 성과 격차가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제3차 추진계획의 초년도 점검에서는 68개 성과지표 중 달성 52개, 일부 달성 13개, 미집계 3개로 나타나 목표 달성률은 76.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제2차 계획의 달성률보다 상당히 개선된 결과로, 제3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표 체계의 간소화와 현실화, 목표치 조정, 부적합 지표의 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환경 분야는 미집계 지표인 자원 재활용률 1개를 제외한 전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여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초년도 성과가 안정적인 중장기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표의 대표성, 목표치의 도전성, 사업별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 SDGs 2030’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추진계획을 제도화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이번 제4차 보고서는 제2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제3차 계획의 출발점을 진단한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양적 달성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와 분야 간 균형, 자치구·기업·시민사회와의 협력, 국제도시로서의 책임성을 함께 높여 나가야 합니다.

제6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이 새롭게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에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가치가 서울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점검,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발전 확산 활동 등 조례에서 정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가 제2차 계획과 제3차 계획을 연결하는 전환기 보고서인 만큼, 과거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관리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게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고민해 왔고, 개별 국가와 주요 도시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거대 계획과 세부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UN 등 국제기구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주요 도시들과 헌신적인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동행 공동체 역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인류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특별한 사명감으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보고서 집필과 검토 작업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애써주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6월

제6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태영

[목차]

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개요	1
1.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평가 동향	1
1.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목적 및 방법	3
1.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주요내용	5
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과제별 평가	11
2.1	2024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점검 결과	11
2.1.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11
2.1.2	활력 찬 경제정의 도시	21
2.1.3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	28
2.1.4	함께 만드는 서울	39
2.2	2025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점검 결과	47
2.2.1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	47
2.2.2	활력을 더하는 경제정의 도시	56
2.2.3	쾌적한 기후환경 선도도시	62
2.2.4	함께 만드는 포용도시	69
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 결과 요약 및 향후 과제	76
3.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 요약	76
3.2	향후 과제	104
4.	결어	111

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개요

1.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평가 동향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한 이래,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1992년 UN 리우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의제21〉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합의한 이후, 2002년 리우+10회의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과 지표 개발·평가를 강조하였고, 지방정부 차원의 이행 확산(Local Agenda 21)에 대한 재합의가 이루어졌다.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를 거쳐 2015년 UN 총회에서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확정하였으며, 이 목표는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보편적 과제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제1차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지방정부로의 확산을 본격화하였고, 2021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복원과 함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이 국가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서울시는 2012년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를 기획조정실로 지정한 이래, 2013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17년에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 평가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후 2019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제 및 국가적 목표 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수립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0년 12월에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0~2024)과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이 2024년에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제3차 계획은 제2차 계획의 평가 결과와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지표체계를 대폭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제2차 계획의 108개 성과지표 중 64개가 삭제되고 24개의 신규지표가 도입되어, 제3차 계획은 총 68개의 성과지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재편은 기달성 지표의 정리, 부적합한 지표의 교체, 중복지표의 통합, 그리고 ESG 경영·기후테크·고령자 고용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결과이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주요 추진실적

□ 2022년 추진실적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4월)
- 전문가 토론회 개최(4월)
- 제2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6월)
- 기본조례 일부개정(12월)

□ 2023년 추진실적

-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제정(5월)
- 이행계획 '22년 실적 점검(~12월)
-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4회 개최

□ 2024년 추진실적

-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3월)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5월)
- 제3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6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토론회 개최(10월)

□ 2025년 추진실적

- 제6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2월)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6월)
- 2025 서울시 자발적 지역검토(VLR, Voluntary Local Review) 발간 (6월)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9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토론회 개최(12월)

□ 2026년 추진실적

- '24~'25년 추진계획 추진실적 점검(2월)
- 제4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6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2년간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차 이행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24년과 제3차 추진계획의 첫해인 2025년의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4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두 개의 계획 기간에 걸친 전환기적 평가라는 점에서 이전 보고서와 차별적 의의를 가진다.

1.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목적 및 방법

1.2.1. 평가목적

본 보고서는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본계획,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핵심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제2차 이행계획(2020~2024년)의 최종 연도 점검과 제3차 추진계획(2025~2029년)의 초년도 점검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계획 간 연속성과 개선 사항의 반영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 목표1 : 서울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변화 양상 파악 및 제2차 계획 총평
- 목표2 : 제3차 추진계획 초년도 이행 성과 점검 및 정책 수요 파악
- 목표3 : 서울시 행정부서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 내재화 촉진

1.2.2. 방법 및 특징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보고서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제2차 이행계획의 2024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로서, 4대 전략, 97개 이행과제, 106개 이행사업, 108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제3차 추진계획의 2025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로서, 4대 전략, 17대 과제, 59개 이행과제, 68개 세부사업, 68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 기준은 제3차 보고서의 기준을 계승하되, 제3차 추진계획 평가에서는 초년도인 점을 감안하여 달성률 추세 분석 대신 단년도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참고)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달 성	✓조기달성 예 24년 50%, 25년 50%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24년에 100%를 전부 달성한 경우에 25년 실적이 없어도 달성으로 간주 ✓ 사업을 변경 추진하여 완료한 경우 예 타당한 사유로 사업 A를 사업 B로 변경하여 달성 타당한 사유로 A와 B의 별도 지표를 A지표로 통합하여 관리하여 달성	
일부달성	✓ 사업 지연 및 중단의 경우, 제반 상황 및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50% 이상 100% 미만 달성 예 중앙정부 승인절차 지연,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 지연, 돌발 상황 발생 등
미 달 성		50% 미만 달성 예 24년, 25년 실적산출 불가, 정상 추진 중, 예산미확보로 사업 종료, 사업비 과다로 중단 등

- 상승해야 하는 수치의 달성률 계산법 = 실적치/목표치 * 100
- 내려가야 하는 수치의 달성률 계산법 = [1-(실적치-목표치)/목표치 * 100]

1.2.3.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제6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집필 및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 제2차 이행계획의 2024년 실적 및 제3차 추진계획의 2025년 실적
- 내용 : 지표별 달성률, 2차·3차 계획 간 지표체계 비교분석, 과제별 지속가능성 점검 및 향후 과제
- 과정 : 지표별 실적 수집 → 자료 검토 → 지표 평가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점검 과정은 2026년 1월 사업부서로부터 2개년('24~'25년) 지표별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담당관이 자료를 검토하였고,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지표를 평가하고 이를 제4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최종 보고서를 공표한다.

본 보고서는 제2차 이행계획 기간(2020~2024년)의 최종 연도와 제3차 추진계획(2025~2029년)의 초년도를 동시에 다루는 전환기적 보고서이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2024년과 2025년의 과제별 평가를 각각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제2차 계획의 5개년 총평과 제3차 계획의 초년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향후 과제를 도출한다.

1.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주요 내용

1.3.1. 제2차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2020~2024년)

제2차 기본계획은 '2030 지속가능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여 4대 전략, 17대 과제,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사업, 108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UN SDGs 17개 목표 체계에 서울의 특색을 반영하여 17대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서울시민 1천 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5대 역점과제를 선정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의 전체 구조는 제3차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 구조 : 4대 전략, 17대 과제,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사업, 108개 성과지표

목표	2030 지속가능도시 서울			
4대 전략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활력 찬 경제정의도시	쾌적한 기후환경도시	함께 만드는 서울
17대 과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역점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역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역점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역점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역점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이행과제	26개 이행과제	18개 이행과제	30개 이행과제	23개 이행과제
세부사업	27개 세부사업	24개 세부사업	31개 세부사업	24개 세부사업
성과지표	28개 성과지표	24개 성과지표	32개 성과지표	24개 성과지표

※ 17대 과제 : UN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체계에 서울의 특색 반영('17.11월/평가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5대 역점과제 : 서울시민 1천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19.4월/평가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3.2. 제2차 이행계획(2020~2024년)

4대 전략	총 17대 과제	이행과제 (총 97개)	세부사업 (총 106개)	성과지표 (총 108개)
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1-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4개	4개	4개
	1-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3개	3개	4개
	1-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역점	9개	9개	9개
	1-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6개	7개	7개
	1-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4개	4개	4개
2. 활력 찬 경제정의도시	2-1.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4개	7개	7개
	2-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역점	7개	9개	9개
	2-3.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3개	4개	4개
	2-4.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역점	4개	4개	4개
3. 쾌적한 기후환경도시	3-1.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6개	6개	7개
	3-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9개	9개	9개
	3-3.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역점	6개	7개	7개
	3-4.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3개	3개	3개
	3-5.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6개	6개	6개
4. 함께 만드는 서울	4-1.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역점	8개	8개	8개
	4-2.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9개	10개	10개
	4-3.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6개	6개	6개

1.3.3. 제3차 기본전략(2025~2045년)

제3차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은 제2차 계획의 평가 결과와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전체 구조는 4대 전략을 유지하되 전략 명칭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이행과제와 성과지표 체계를 대폭 간소화·효율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2차 계획 대비 제3차 계획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지표가 108개에서 68개로 약 37% 축소되었다. 이는 기달성 지표의 정리(나무 식재량, 자연생태 보호지역 증가면적 등), 부적합 지표의 교체(미래유산 선정 건수 → 아카이빙 자료 구축 건수 등), 중복지표(대중교통 수단분담률 등)의 통합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둘째, 24개의 신규지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디딤돌소득 참여가구 수, 서울런 회원 수, 기후테크기업 지원 수, 고령자 취업 훈련 참가자 수, ESG 인력 양성 교육 참가자 수 등 변화된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셋째, 일부 지표의 목표치가 현실화 되었다. 예컨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의 2030년 목표가 70,000가구에서 26,000가구로,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의 2030년 목표는 5,500명에서 5,000명으로 각각 조정되었다.

〈제2차 및 제3차 계획 비교〉

구분	제2차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제3차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4대 전략	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2. 활력 찬 경제정의 도시 3.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 4. 함께 만드는 서울	1.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 2. 활력을 더하는 경제정의 도시 3. 쾌적한 기후환경 선도도시 4. 함께 만드는 포용도시
17개 과제	17개 과제(5대 역점과제 포함)	17개 과제(구성 일부 조정)
이행과제	97개	59개
세부사업	106개	68개
성과지표	108개	68개
지표 변화	기존 44개 유지+ 신규 24개 도입(64개 삭제)	

- 구조 : 4대 전략, 17대 과제, 59개 이행과제, 68개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

비전	“함께 만드는 변화, 지속 가능한 서울”			
4대 전략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	활력 더하는 경제정의 도시	쾌적한 기후환경 선도도시	함께 만드는 포용도시
17대 과제	모든 형태의 빈곤 완화를 위한 노력 핵심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 조성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향 균형 확보	포용적 경제활력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핵심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핵심	과학기술 혁신 장려로 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도시 실현 핵심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성 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여성의 역량 강화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이행과제	17개	13개	16개	13개
세부사업	20개	16개	18개	14개
성과지표	20개	16개	18개	14개

※ 17대 과제 : UN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체계(15.9. 발표) 계승 및 서울의 특색 반영

1.3.4. 제3차 추진계획(2025~2029년)

4대 전략	17대 과제	총 59개 이행과제	총 68개 세부사업	총 68개 성과지표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	1 모든 형태의 빈곤 완화를 위한 노력 핵심	4	5	5
	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 확보	1	1	1
	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핵심	6	6	6
	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4	6	6
	5 성 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and 여성의 역량 강화	2	2	2
활력을 더하는 경제정의 도시	7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4	5	5
	8 포용적 경제활력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5	6	6
	9 과학기술 혁신 장려로 산업 경쟁력 강화	2	2	2
	10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2	3	3
쾌적한 기후환경 선도도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5	6	6
	14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1	1	1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2	3	3
	13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도시 실현 핵심	4	4	4
	15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4	4	4
함께 만드는 포용도시	11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도시 조성	5	6	6
	16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핵심	5	5	5
	17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3	3	3

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과제별 평가

2.1. 2024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점검 결과

2.1.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2.1.1.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을 위한 노력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국민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서울시민 복지기준 2.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4.7/ 2.7	달성 (174.1)	2.75 /
2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인원(명)	5,790/ 6,600	일부달성 (86.9)	7,260 \
3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이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금융복지 상담 건수(건)	33,929/ 25,000	달성 (135.7)	26,000 /
4	서울시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회적·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여 나간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가구)	25,916/ 45,000	일부달성 (57.6)	70,000 /

-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을 위한 노력〉의 이행을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와 이행사업,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2024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과 금융복지상담 건수의 달성률은 100% 이상으로 나타났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인원(86.9%)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57.6%)는 목표치에 일부달성하였다.
- 2024년도 달성률 추세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과 금융복지상담 건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등은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인원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은 2030년 2.7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2022년 4.4%, 2023년 4.5% 그리고 2024년 4.7%를 달성하여 매년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

1) 달성 추세는 달성률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목표치 대비 100% 달성하였더라도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달성률이 증가하면 /, 변동이 없으면 -, 그리고 감소하면 \로 표시함. 달성률 추세는 목표치와 실적치가 증가하고 목표 달성을 했더라도 달성률이 하락하면 추세선은 \로 표시되고 목표 달성을 못 했더라도 달성률이 증가하면 추세선은 /로 표시되는 등 실질적 이행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이행과제에서 성과를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대안으로 실적치를 기반으로 한 추세 분석이 있는데 이 경우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적이 증가하면 추세선이 /로 표시되어 목표 달성 노력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다. 소관부서 의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또한 정부의 일회성 복지 지원이 증가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신청 인원이 증가하여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추후 일시적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효과로 지속된다면 2030년 목표치를 상향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인원은 2030년 7,26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4년 실적은 5,790명으로서 목표 수준인 6,600명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며, 2024년 목표 달성률은 86.9%로서 목표치에 일부 달성하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체 재원 100%로 운영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독자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적용 및 사적이전소득 미반영 등 서울형만의 차별화된 소득·재산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운영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예산 운용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금융복지 상담 건수는 2030년 26,0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2022년 29,927명, 2023년 32,907명, 2024년 33,920명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금융복지 상담 건수는 복지 수요를 의미하는 지표로서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고 해서 취약계층이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급 면에서 실제로 금융복지 혜택을 받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예시: 금융복지 연계 서비스 참여자 수 등). 또한 금융복지뿐만 아니라 고용(일자리)까지 연계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는 2024년 목표인 45,000가구에 못 미칠 뿐 아니라 2024년 목표 달성률도 57.6%로서 낮은 편이다. 또한, 2030년 목표인 70,000가구에 비해서 목표 대비 실적의 차이가 크다. 다만,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1.1.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5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균형 있는 먹거리를 보장한다.	서울 먹거리 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및 먹거리 거버넌스 추진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수립완료/ 24년 이행계획 수립	달성	계속 추진 -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횟수	13/ 14	일부달성 (92.9)	계속 추진 /
6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애고, 생물학적으로 취약계층인 5세 미만 아동, 청소년기,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명)	5,132/ 5,500	일부달성 (93.3)	5,500 ↘
7	지방 농수산물 생산자와의 바람직한 유통구조 를 구축하고, 소규모 식량 생산은 물론 빈곤 및 정신건강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농업을 지원한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운영	도시텃밭 조성면적(ha)	223/ 240	일부달성 (93.3)	260 ↘

-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의 이행을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3개의 이행사업, 4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2024년에는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은 달성으로 나타났고, 그 외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횟수,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명), 도시텃밭 조성면적(ha) 등은 일부달성으로 나타났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정성지표에 해당하는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은 2년 연속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3개 정량지표의 달성률 추세를 보면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횟수는 상향,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명) 지표와 도시텃밭 조성면적(ha)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횟수는 2024년 목표인 14회에 못 미쳤지만 13회로 일부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목표 횟수에 미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횟수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의 “제4장 서울특별시 먹거리 시민위원회”에서 자세하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 명문 규정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과 더불어 장기적인 성과지표로서 관리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명)은 이미 2023년 5,536명을 달성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2024년에는 5,132명으로 5,500명 달성 목표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였다. 소관부서 의견에 따르면, 사업 수혜를 받는 서울시 0-5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그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는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였고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 도시텃밭 조성면적(ha)은 2030년 260ha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3년 실적은 222ha로서 목표 수준인 232ha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고, 2023년 목표 달성률은 95.7%로서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2.5% 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어서 2024년 실적도 도시텃밭 조성면적(ha)은 93.3%로 목표에 미치지 못하여서 일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1.1.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8	산모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출생아 대비)(%)	79/ 65	달성 (122)	70 ↗
9	5세 미만 사망자 수를 1,000명당 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출생아 대비)(%)	79/ 65	달성 (122)	70 ↗
10	법정감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 관리와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감염병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회)	운영/ 운영	달성	운영 -
11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을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정책을 통하여 자살 건수를 대폭 줄인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단계 자살예방 추진	자살률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명)	24.1/ 20.2	일부달성 (81)	19 ↘
12	마약, 알코올, 흡연 및 도박 등 모든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건)	5,402/ 4,600	달성 (117.4)	5,000 ↘
13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건수를 2015년의 절반으로 줄인다.	교통사고 사망자 획기적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212/ 전년 대비 감소	일부달성	감소 (↘) ↘
14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기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명)	134,017/ 101,000	달성 (132.7)	103,000 ↗
15	서울형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을 제고한다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서울시 보건지소 수 (개소 수)	39/ 운영	달성	운영 -
16	유해물질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대책을 강화한다.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	중독질환 예방교육(교구배포 포함) 자원 건수	15,000/ 14,000	달성 (107.1)	운영 ↗

-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의 이행을 위해서 9가지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9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2024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 서울시 보건지소 수, 중독질환 예방 교육 등은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였고, 자살률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일부달성에 그쳤다.
- 2024년 달성추세를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2개),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 중독질환 예방 교육 지원 건수 등 4개 지표 건수는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과 서울시 보건지소 수는 유지율, 자살률,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하향 추세를 보였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은 2030년 7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실적은 79%로서 목표 수준을 달성하였다. 이는 출생률이 다른 도시보다 낮은 서울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사업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성과지표로서 2022년과 2023년 연도별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2024년에도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자살률(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에 대한 목표치는 2024년에 일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²⁾에 속하며,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24.1명에 이른다. 반면, OECD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11.6명으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약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³⁾. 이러한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정신건강 관리와 자살 예방 정책의 강화를 위해서 중앙 및 지방의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는 2030년 5,000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2023년 5,976건을 달성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2024년에도 목표 수준 4,600건 수를 넘는 5,402건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 사망자 수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실제로 2022년 221명에서 2023년 177명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212명으로 목표 수준에 일부만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행과제의 목적을 달성

2)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

<https://www.kdca.go.kr/injury/biz/injury/damglInfo/siSucdeMain.do?sessionId=3B35B1A01983E3E0D9664A53C0203CA8>

3)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

<https://www.kdca.go.kr/injury/biz/injury/damglInfo/siSucdeMain.do?sessionId=3B35B1A01983E3E0D9664A53C0203CA8>

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중상자 수를 추가하여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외에도 중상을 입은 사람의 수를 측정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폭넓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는 2030년 103,0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3년 이미 근접한 102,493명을 달성하여 양호한 성과를 보였고, 2024년에는 134,017명으로 132.8%로 목표 수준을 넘어섰다.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는지 소관부서에 문의한 결과, 정책사업의 필수 대상자군(집중, 정기, 자기역량지원군) 가운데 자기역량지원군이 선택으로 바뀌고, 방문건강관리사업(대면, AI IOT비대면)의 중복 관리가 불가한 것으로 국가 정책사업이 변경되어 등록관리자수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꾸준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보건지소 수는 보건지소 수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실제로 2022년 37곳에서 2023년 41곳으로 설치된 보건지소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목표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예산 미반영의 이유로 39곳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또한 2022년까지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2023년 이후 단순한 운영 이외에 성과목표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는 서울형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시립병원 이용자 수로 지표가 변경되어 지속가능발전을 보다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독질환 예방 교육 지원 건수는 성과목표 달성률이 2024년에는 107.1%로 목표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방 교육에 대한 질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은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1.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17	취학 전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호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4.0/ 52.0	달성 (103.8)	60 ↗
18	모든 서울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기술훈련, 직업 훈련, 대학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서울시민대학 운영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수(명)	50,403/ 35,646	달성 (141)	42,560 ↗
19	서울시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취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 한 기술과 지식을 취득할 기회를 확대한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기술교육원 교육수료율(%)	92.2/ 89.8	달성 (102.7)	90 ↘
20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市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명)	30,946/ 45,000	일부달성 (68.8)	50,000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개소)	134/ 136	일부달성 (98.5)	150 ↘
21	어떠한 서울시민도 글자해독능력, 산술능력, 기본적인 정 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명)	22,260/ 20,000	달성 (111.3)	21,000 ↘
22	서울시민에게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한다.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실시	교육 이수자수(명)	2,726/ 1,400	달성 (194.7)	2,000 ↗

-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의 이행을 위해
서 6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7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2024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 기술교육원 교육수료율,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교육 이수자 수 등은 100% 이상 달
성을 보였고,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68.8%),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98.5%)는 일부 달성에 그치고 말았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 교육 이수
자 수는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 기술교육원 교육수료율,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는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30년 6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51.5%
로서 목표 수준(51%)을 상회하였고, 2024년에는 54.5%로 목표치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20년 43.8%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는 2030년 42,56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

은 37,998명으로서 목표 수준(34,608명)을 상회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2024년도 50,403명으로 목표 수준(35,646명)에 상회하여 141% 달성률을 보였다. 향후 단순히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로 지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서울시 인구 대비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 증가율로 성과지표를 대체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기술교육원 교육 수료율은 2030년 9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92.2%로서 목표 수준(89.6%)을 상회하였다. 2024년에는 22,260명으로 목표 수준(111.3%)을 넘어서 달성하였다. 다만, 기술교육원 교육 수료율은 2030년까지 성과지표로서 관리하는 게 큰 의미가 없기에 서울시 인구 대비 기술교육원 교육수료인원 증가율로 성과지표를 대체하는 등 지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는 2020년 34,000명, 2021년 32,640명, 2022년 24,991명, 2023년 29,635명으로서 2020~2021년에 비해서 실적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4년 30,946명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실적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적치의 변동 및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원인과 이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지표는 실효성 및 대표성 문제로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는 삭제되었고, 여성의 교육 및 차별에 대한 지표는 SDG 5번으로 이동하였다.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는 2020년 131개소에서 2022년 135개소로 확대되었으나, 2025년 134개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용 장애인도 감소추세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와 동일 대상인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사업(발달장애인 주간돌봄 서비스)과 연계된 민간 일자리 활성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해당 지표의 실효성을 검토하거나 목표치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화 교육 이수자 수는 2030년 2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27,246명으로서 목표 수준(19,500명)을 상회하였다. 이어 2024년에는 22,260명으로서 목표 수준(20,000명)을 넘어서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서울’ 교육실시를 위한 교육 이수자 수는 2,726명으로 목표 수준(1,400명)을 넘어서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2.1.1.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23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 추진 건수	419/ 300	달성 (139.7)	350 ↗
24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안심이 앱 다운로드(건수)	334,000/ 270,000	달성 (123.7)	300,000 ↗
25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가사노동 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개소)	278/ 350	일부달성 (79.4)	380 ↘
26	여성이 남성과 공평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리더십 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여성관리자 양성	여성관리자 양성비율(%)	40.7/ 33.2	달성 (122.6)	33.5 ↗

-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의 이행을 위해서는 4가지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4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4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안심이 앱 다운로드(건수), 여성관리자 양성비율, 성별영향평가 추진 건수는 100% 이상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79.4%)는 일부 달성을 나타내고 있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 지표는 하향 추세를 성별영향평가 추진 건수, 안심이 앱 다운로드(건수), 여성관리자 양성비율은 상향추세를 보였다.
- 성별영향평가 추진 건수는 2030년 35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270건으로서 목표 수준(250건)을 상회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24년에는 419건으로서 목표 수준(300건)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심이 앱 다운로드 건수는 2030년 300,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실적은 334,000건으로서 목표 수준(270,000건)을 상회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는 이행과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더욱 적극적인 대안 지표개발이 요구된다.
-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는 2030년 38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274개소로서 목표 수준(320개소)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4년의 실적을 살펴보면 278개소로서 목표 수준(350개소)에 미치지 못하였다. 키움센터 대부분이 구립 시설이라서 자치구에서 마땅한 유휴공간을 발굴하기 어려워 사업 확대가 목표치만큼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 여성관리자 양성비율은 2030년 33.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36.3%로서 목표 수준(33.1%)을 상회하였으며 2024년은 40.7%로 목표 수준(33.2%)을 달성하였다. 다만, 성평등 분야는 여성 리더십 확대 성과는 분명하나 실질적인 양성평등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보완지표가 더 필요해 보인다. 이에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새롭게 신설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1.2. 활력 찬 경제정의 도시

2.1.2.1.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제고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27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 발급률(%)	98.5/ 98	달성 (100.3)	98.8 ↘
28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8%를 달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누계) (MW)	1,529/ 1,304	달성 (117.3)	2,405 ↗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통합완료/ 성공판단	달성	계속 추진 -
29	건축물 부문과 교통 부문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건물에너지 효율화	그린 리모델링 (노후 공공건물) (개소)	51/ 96	일부달성 (53.1)	1,079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전기차 보급 대수(누계)(대)	103,914/ 133,044	일부달성 (78.1)	신차 등록 대비 전기·수소차 비율 50% ↘
30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7대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카,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IT, 도시자원순환)을 증진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CO ₂)	45,107/ 전년(46,560) 대비 감축	달성	29,600 ↘
		녹색 중소기업 지원	지원 수혜 녹색 중소기업 지원 수	267/ 183	달성 (145.9)	200 ↘

-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제고>의 이행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와 각각 7개의 이행사업 및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정의에 관한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서울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공급량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권 보장은 기후적응 측면에서 중요한 목표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이행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 이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그린 리모델링과 전기차 보급 대수에서 일부 달성이, 나머지는 모두 100% 이상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79%로 집계되었다.
- 2024년도 달성추세는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이전보다 달성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목표들은 2023년보다 달성률이 감소 또는 변동이 없어 하향 및 유지 추세를 보여 목표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 에너지 바우처 대상가구 발급률은 98% 목표치를 정하였지만, 2023년 99%를 달성한 바 있어서 2024년 98.5%는 2023년에 비해 감소한 실적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발급대상들의 참여가 중요하여, 찾아가는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행정복지 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소관부서 문의 결과, 시는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기간 내 바우처 금액 미사용인 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 사용 방법, 사용처 등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금액을 소멸시키지 않고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누계)용량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신재생에너지 사용량/총에너지 사용량)로 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30 목표는 8%, 2040 목표는 17%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요금차등제' 도입을 고민하는 만큼 서울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서 노후 공공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사업과 전기차 보급대수는 일부 달성에 그쳤으며, 이들 2030 목표에 대한 달성추세 역시 하향세를 보여 2030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보인다. 다만, 긍정적인 신호는 2023년 전기차 누적보급대수는 목표에 미달하였지만, 신규 등록차량수가 감소하였고, 신규 등록차량수 중 전기차나 수소차의 비율은 늘어나 신규 차량의 경우 전기차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대비 총 등록차량의 수는 0.07% 감소한 반면, 전기차는 약 23%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신규 등록차량 중 친환경차 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은 2년 전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2022년 46,560천톤CO₂ 대비 3.1% 감축한 45,104천톤CO₂를 배출하였다. 2030년까지 29.600천톤CO₂ 이하 배출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효율화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제 및 환경 분야에서 중복으로 설정하여 다뤘으나,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는 환경 분야에서만 다루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환경 분야에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는 기후위기를 막고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지표로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달성할 수 있는 지표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 등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지표인 만큼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 녹색기술 R&D 지원은 7대 녹색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30 목표가 2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2024년 이미 2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여 목표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목표 수준의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

2.1.2.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31	타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GDP, GRDP의 성장을 도모한다.	지역자원 교류의 거점 공간 「상생상회」 조성·운영	상생상회 상설매장 월 방문객 수(명)	213,029/ 16,000	달성 (1331.43)	20,000 /
32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창의·혁신을 통한 산업 다각화로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개)	1,378/ 1,350	달성 (102.1)	1,800 /
33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개)	6,332/ 6,200	달성 (102.1)	6,500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수(개)	64/ 50	달성 (128)	50 /
34	성별임금격차 개선으로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성평등임금 컨설팅 기관 수(개)	78/ 50	달성 (156)	50 /
35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 상태의 청년 비율을 대폭 줄인다.	청년 뉴딜일자리 추진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명)	3,728/ 4,200	일부달성 (88.8)	4,200 \
36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자권리 구제건수(건)	176/ 240	일부달성 (73.3)	300 /
37	서울시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입안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	서울 관광 중기발전계획 추진	관광기업 지원 수(개)	1,143/ 1,200	일부달성 (95.3)	3,000개 \
		관광분야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관광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여부	미검토/ 관광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검토	-	검토 시행 -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목표에는 7개 이행과제와 9개의 이행사업 및 성과지표가 포함된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총생산과 같은 총량 지표보다는 사회적 경제나 약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등 지속가능한 경제의 토양이 되는 과제들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 2024년 성과지표 달성 여부는 달성이 5개, 일부달성은 3개, 1개 목표는 미달성하였다. 미달성한 과제는 관광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여부인데, 2024년 관광분야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시기가 미도래하여 행정검토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024년 달성추세는 9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년대비 이행상태가 향상되었고, 2개 지표는 하향 추세를 보였으며, 2개 지표는 보합 및 미검토 상태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수는 전 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관광분야 중장기 행정계획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상생상회는 2018년부터 서울시가 농가의 판로를 돕고 지방과의 상생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월 방문객 수가 목표치를 훨씬 웃돌아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현재 169개 지역 1,050개 업체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 4,710개가 입점하여 활성화되었다.⁴⁾ 다만, 사업의 성과를 방문객 수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평가보고서에서 지표변경을 권고하였고 전문가 및 소관부서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는 2023년 대비 상향하며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신성장기업은 산업의 다각화와 생산혁신으로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6대 핵심기술에 기반하며 이 분야의 육성기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대 핵심기술은 바이오의료, 인공지능(AI), 로봇, 창조산업, 첨단제조, ICT기반기술인데, AI 활용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혁신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의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 서울형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과제를 이행 중이며, 목표치를 상회하여 달성하였다. 그러나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경험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 우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성평등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 컨설팅 기관 수는 2024년 목표치(50개) 대비 높은 실적치(78개)를 기록하며 달성하였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2019년 전국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 중이며,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까지 법적 근거와 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2027년부터 공공·민간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도 도입 시 성별 임금격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는 일부달성에 그쳤는데, 매해 4,200명 목표치는 동일한 반면, 교육과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의 수는 해마다 소폭 줄어들고 있다. 2023년 뉴딜일자리 참가한 청년 중 60% 이상이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결과이다. 현재는 ‘매력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3,600명 모집으로 목표치도 현실화하였다.
- 노동자 권리 구제 건수는 지난 3년간 해마다 목표가 증가하였으나(200 → 220 →

4) 김중화, 2023.3.28.일자 “[뉴스속용어]지역과 서울의 상생실천하는 상생상회” 아시아경제

240) 이행실적은 점진적 증가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실적으로 노동권익센터의 권리구제 사업의 예산과 운영 정책에 따라 목표달성 여부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2023년 이후 예산감소로 인해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 보였다. 이에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서는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였고, 앞으로는 현실적인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소재 관광기업 지원수는 지난 3년간 목표치를 상회하여 100여 개씩 증가하였으나 2024년 처음 관광기업 지원수가 감소하였다. 서울시 관광사업체 현황⁵⁾을 보면 2023년에 비해 2024년 크게 증가한 분야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정도가 있으며 다른 업체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관광분야 중장기행정계획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서울시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시기상, 2024년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 시기가 미도래 한 것으로 이해된다.

2.1.2.3.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38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과 행복한 삶을 위한 양질의 친환경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통계치 미집계/ 66.6	통계치 미집계	67.3
39	미래 기술 기반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개)	1,378/ 1,350	달성 (102.1)	1,800 ↗
40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	「서울형 R&D」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지원금액 (백만원)	36,759/ 38,233	일부달성 (96.1)	38,233 ↘
		AI 인재양성	AI 분야 인재 양성 수(명)	816/ 500	달성 (163.2)	750 ↘

-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목표는 3개 이행과제와 4개의 이행사업 및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미집계 지표를 제외하면 2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서울형 R&D 지원금액은 목표치에 미달하였다.
- 2024년 달성률 추세는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수를 제외하고는 달성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에 대한 투자로서 서울형 R&D 지원금액과 AI 분야 인재양성 수 달성률이 전 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AI 분야 인재양성 수는 목표치를 163.2% 달성하였으며, 2023년, 2024년 연속 2030 목표인 750명을 넘어섰으므로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408/S/2/datasetView.do>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표이다. 다만, 집계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지표변경이 필요해 보인다. 2022년 62.9%, 2023년 64.4%로 향상되었으며 2019년 65.6% 이후 코로나 여파로 감소하였던 분담률이 회복세를 보인다.
- 서울형 R&D 지원금액이 감소한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2030까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된 것은 다소 현실에 맞지 않아 보인다. 서울형 신성장기업과 유사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지원금액을 향상하는 것이 향후 인재개발 및 AI 활용 분야에서 서울의 고부가가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일 것으로 보인다.

2.1.2.4.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4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중위소득 하위 43%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명)	450,327/ 412,033	달성 (109.3)	552,164 ↗
42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 수(누적) (개)	98/ 100	일부달성 (98)	135 ↘
4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개선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인권영향평가제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 (건)	3/ 3	달성 (100)	3 -
4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	생활임금 지급률 (생활임금 적용대상 기관) (%)	100/ 100	달성 (100)	100 -

-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은 4개의 이행과제와 4개의 이행사업 및 성과 지표로 평가된다. 2024년 4개 목표 중 3개가 목표를 달성,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 수만 일부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75%를 나타냈으며, 2030 목표 달성 추세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타복지 연계를 통해 수급을 받는 인원을 모두 합한 것으로, 이러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중위소득 43%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긴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419,088명에서 2024년 450,327명으로 증가하여 지원을 받은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행해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수 누계 98개로 2022년 이후 지원단체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서 2030 목표 달성추세는 하향세를 나타낸다. 2023년 이후 사업이 종료되어 더 이상 본 목표와 지표는 유효하지 않지만, 실제로 2000년 이후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폭력피해자, 홈리스 등 인권단체는 꾸준히 늘어나 600개 이상이 활동 중이다.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성과를 평가하기에 매우 적으나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것은 고무적이다.

-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지표로 생활임금 지급률을 관찰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기관 100%가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위탁 등 계약을 맺은 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시급에 반영하고 있다. 서울에서의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11,436원으로 최저시급(9,860원)과 비교해 약 1,576원 높다.

2.1.3.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

2.1.3.1.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45	서울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수질검사항목을 강화한다.	아리수 안심 서울 조성	노후상수관 정비율(%)	유지/ 유지	달성	유지 -
46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며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으로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한다.	CSOs 관리를 통한 하천 수질개선	CSOs 저류조 설치 (㎡)	6.2만/ 6.2만	달성 (100)	21.4만 -
47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빗물관리(이용)시 설 확충 사업	빗물관리시설 확충 개소(개소)	63/ 75	일부달성 (84)	75 ↘
48	한강수계 유역의 수질, 수량, 수생생태계를 통합 관리한다.	한강유역 통합 물관리 활동	한강유역 통합 물관리 활동	이행/ 이행	달성	이행 -
49	한강 숲을 조성하고 천변습지와 자연 호안을 조성하는 등으로 한강 수계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추진	한강숲 조성(주)	70,893/ 70,000	달성 (101.3)	7만주 ↘
			자연형 호안 복원 (km)	6.3/ 8.2	일부달성 (76.8)	8.2 -
50	물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민간지원단체 수(개)	0/ 12	미달성 (0)	12 -

-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의 이행을 위해 6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6개 이행사업, 7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4년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빗물관리시설 확충 개소와 자연형 호안 복원 성과지표는 일부 달성하였고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100% 이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다만,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은 2024년 사업종료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미달성하였다.
- 2024년의 달성률 추세를 보면 빗물관리시설 확충 개소와 한강숲 조성은 하향 추세를, 나머지는 5개 지표는 모두 유지하는 추세를 보인다.
- 노후 상수관 정비율의 목표는 2022년 목표인 99%를 유지하는 것이며, 2022년 이후 연속 달성하고 있다. 다만, 2024년도 표에서는 목표치와 실적치를 유지로 표시하고 있어 관련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유지 여부가 아닌 실제 정비율 또는 정비구간과 같이 정량정보를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제안한다.
- CSOs(Combined Sewer Overflows)는 비가 올 때 빗물과 오수가 합류하는 하수도 지역에서 처리시설의 용량이 초과되면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오염원을 뜻한다. 이런 월류수는 공공하천의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CSOs 저류조는 강우 초기 발생하는 고농도 하수를 임시 저장했다가 비가 그친 후 물재생센터에 보내는 기능을 하는 시설이다. 시는 2022~2024년까지 각각 5.8만㎥, 5.8만㎥, 6.2만㎥ 규모의 저류조 설치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다만, CSOs 저류조 설치로 기대했던 한강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하천의 수질 개선 효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와 더불어 BOD, 초기우수 오염 저감 효과 등 결과지표를 병행 관리하도록 적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 빗물관리(이용)시설 확충 개소는 2022년 123%의 달성률을 보이다가 2023년 105.3%, 이어 2024년 84%로 떨어지고 있다. 목표치가 2022년 200개소에서 2024년 75개소로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달성률 100%를 이루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지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빗물관리 대책량으로 지표를 변경한 바 있다. 서울시 불투수율 개선사업 등을 통해 효과적인 빗물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강유역 통합물관리 활동은 한강수계유역의 수질, 수량, 수생생태계를 통합 관리하는 지표로 3년('22~'24년) 동안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목표와 실적이 이행으로 표시되어 매우 추상적으로, 이를 계량화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수질 오염총량을 관리하며 방류 수질 개선을 새로운 과제로 제언했고, 이를 위한 성과지표로 수질 오염 총량관리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한강수계수질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강 수계의 자연성 회복’ 과제의 2가지 지표 중 한강숲 조성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목표를 달성하였다. 반면, 자연형 호안 복원은 2022~2024년까지 일부 달성에 그치고 있다. 이는 복원사업이 2~3년에 걸친 중장기 계획이고 한강 침수 등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로 단년도 목표 및 실적치 도출이 어려운 것이 이유일 수 있다. ‘2030 한강자연성회복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완료해야 할 자연형 호안 복원 목표치가 있다면 매년 누적 실적치와 누적 달성률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지표 관리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민간 지원단체 수는 0으로 달성률이 0%였다. 2022년과 2023년 달성률 100%와 비교하면 급격한 변화이다. 소관부서 문의 결과, 2024년부터 국비 예산 집행 중단에 따른 사업종료가 원인으로 보인다. 물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고려할 때 지원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에 2025년에 수립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서는 ‘시민자율 환경감시단’ 사업으로 설정하여 시민 참여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2.1.3.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51	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대 목표 추진	서울 SDGs 체계 이행	성과점검 완료/ 성과점검	달성	성과점검 및 미래 사업발굴 - 70
52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추진	(자원)순환이용률 (%)	70.7/ 69%	달성 (102.5)	↗ 15.9
53	서울시민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종합계획 수립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14년 대비)	25.56/ 13	달성 (192.2)	↗
54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 권리 강화	환경보건위원회 운영(회)	3/ 5	일부달성 (60)	5 -
55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자원순환도시 구축	생활폐기물 감축률 (%)	13.4/ 8	달성 (167.5)	10 ↗
56	서울지역 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권고·지원한다.	서울 SDGs 2030의 민간실천 촉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단체)수 (건)	363/ 85	달성 (427.1)	100 ↗
57	시민의 친환경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구매 등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확대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리	녹색제품 구매율(%)	49.6/ 60	일부달성 (82.7)	63 ↗
58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실시	교육 이수자수 (명)	2,726/ 1,400	달성 (194.7)	2,000 ↗
59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소비와 생산을 부추기는 조세 및 보조금 등 제도를 점검한 후 이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친환경금고기준	친환경금고지정 기준	지표관리/ 지표관리	달성	지표관리 -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의 이행을 위해 9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9개 이행사업, 9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4년도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환경보건위원회 운영과 녹색제품 구매율 등 2개 지표는 일부 달성하였고, 서울 SDGs 체계 이행, (자원)순환이용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생활폐기물 감축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단체) 수, 교육 이수자 수, 친환경금고지정 기준 등 7개 지표는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다.
- (자원)순환이용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생활폐기물감축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단체) 수,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등의 지표는 이미 2030년 목표치를 넘어선 상태이므로 목표치 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 서울시 SDGs 체계이행 지표는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17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

- 는 지표이다. 2022년에는 성과점검, 2023년에는 지표관리, 2024년에는 성과점검을 목표로 하였고 모두 달성하였다. 다만, 단순히 점검 유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행위의 결과가 이후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필요해 보인다.
- (자원)순환이용률은 통계치가 누락된 2023년을 제외하고 2022년, 2024년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여 달성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순환이용률 목표치 69%를 상회하여 70.7%를 달성하였는데 이 실적치는 2030년 목표인 70%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연도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또한 3년 연속 초과 달성을 보인다. 2030년 목표치는 2014년 대비 15.9%를 감량하는 것이다. 2022년에 이미 22%를 감량하였고, 2023년에 23.8%, 2024년 25.6%를 감량한 추세를 보면 2030년 목표치를 대폭 상향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표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때에는 비고란에 상향 조정된 상황을 기록해 두면 이후 평가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보건위원회 운영은 연 5회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3회 운영에 그쳤다. 2022년 초과 달성한 이후 2년 연속 일부 달성에 그치고 있다. 연 5회 운영이면 격월 1회 운영 수준인데 이 정도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격월 1회 운영 의무화, 민간 위원에게 안전 상정의 권한 부여, 민간 간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생활폐기물 감축률은 2022~2024년 연속해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2024년에는 목표치인 8%를 상회하는 13.4%를 기록하였다. 이는 2030년 목표치인 10%보다도 높은 실적치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다. 확대가 필요한 소각장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민간소각장 활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발생지 처리 원칙 파괴, 환경 정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미 초과 달성한 목표치를 과감히 상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면 좋겠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단체) 수는 2022년 424%, 2023년 394%에 2024년에도 427% 초과 달성하였다. 2030년 목표치인 100건과 비교해도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라 연도별 목표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6년부터 ESG 정보 고시가 단계별로 추진되면서 공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ESG 경영보고서 작성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ESG 경영보고서는 지자체별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전문가 및 소관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표 2개를 제3차 추진계획에 추가하였다.

- 녹색제품 구매율은 달성률이 2022년 84%, 2023년 82%, 2024년 82.7%로 3년 연속 일부 달성에 그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이행률 관리, 의무 구매 대상 대비 실구매 비율 점검 등 실효성 있는 보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해당 지표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평가지표로 관리하고 있어 서울시가 중복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 및 소관부서 의견에 따라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는 제외되었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지표는 유효함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이수자 수 성과지표는 2022년 386.4% 초과 달성, 2023년 96%로 일부 달성, 2024년에 194.7%로 달성률의 변동이 나타난다. 안정적인 지표 이행 관리를 위한 교육 이행 구조 점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현 시정에서 '전환도시 서울'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따라서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는 제외되었다.
- 마지막으로 친환경금고기정기준 성과지표의 경우 2022년 이후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다만, 2022년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후에는 기준을 준수하는 상황 정도라 이미 목표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표에서 제외하고 조기 달성된 지표로 별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2.1.3.3.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60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충충한 수해안전망 구축으로 인명피해 방지 및 재산피해·시민불편 최소화	풍수해 인명피해(명)	0/ 1.8	달성	유지
						-
61	서울시 정책, 전략, 계획에 기후변화 대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기후환경 분야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법정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반영률 (%)	100/ 23	달성 (434.8)	30
						↗
62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에너지 자립마을 2.0	에너지 자립마을 수 (개)	196/ 440	미달성 (44.5)	600
		기후변화 교육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 운영	센터 방문객 수(명)	50,628/ 50,000	달성 (101.3)	100,000
						↗
63	온실가스를 2005년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CO ₂) 대비 감축	45,107/ 전년(46,560) 대비 감축	달성	29,600
						↘
64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서울시 기후 변화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사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기후대응기금 확대 및 운용 개선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편성규모 (백만원)	53,112/ 10,000	달성 (531.1)	10,000
						↗
65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 기후변화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기후관련 국제포럼 개최 건수(회)	1/ 1	달성 (100)	2
						↗

-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의 이행을 위해 6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7개 이행사업, 7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에너지 자립마을 수는 2024년 목표치를 일부만 달성하였고 나머지 7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2.0 사업은 에너지 자립마을 수를 성과지표로 제시하며 440개 마을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196개 마을에 그쳐 달성률이 44.5%에 지나지 않았다.
- 풍수해 인명피해(명)는 목표치 1.8명, 실적치 0명으로 목표 달성하였다. 2022년에도 목표치 2.2명, 실적치 0명, 2023년 목표치 2명, 실적치 0명으로 3년 연속 목표 달성하였다. 매년 목표 달성 여부와 인명피해 방지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목표치 자체를 0명으로 설정하고 지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법정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반영률(%)은 2022년, 2023년, 2024년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실적치 100%는 2030년 목표치인 30%로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이다. 이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시 평가 기준에 기후변화대응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구조가 갖춰진 상태로 판단되며, 이미 지표의 역할이 끝났으므로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 에너지 자립마을 수(개)와 센터 방문객 수(명)는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의 관련 지표이다. 우선 에너지 자립마을 수는 목표치인 440개에 크게 못 미치는 196개로 달성률 44.5%에 그쳤다. 2022년과 2023년에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2022년까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다 그 이후 자치구 자체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아무래도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 구조로구청장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사업 유지가 쉽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자치구, 동 단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전환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자립마을’의 취지를 계승해 ‘기후에너지동행마을’로 넓히고, 취약계층 동행 기조와 연계한 추진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은 서울시 기후 위기 대응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센터 방문객 수(명)는 2022년과 2023년 연속 일부 달성에 그치다가 2024년에는 목표치 50,000명을 초과 달성하였다(50,628명). 광역환경교육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영향으로 보인다. 목표치에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단순 방문하는 방문객 수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드림센터가 전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인식 제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표명을 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변경하고 지표 목표치도 이에 따라 하향 조정해 지표를 관리해 나가면 좋겠다. 또는, 광역환경교육센터와 자치구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천톤CO₂) 지표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지표로 볼 수 있다. 건물, 교통, 폐기물 등 전 분야의 감축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4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로 달성하였다. 다만, 지표와 관련해서 매년 목표치가 전년 대비 감소로 되어 있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서울시가 계획 수립한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역산하여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달성률과 달성량을 매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편성 규모(백만원)는 목표치인 100억을 500% 초과 달성해 530여억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다만, 규모 확대 자체가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는 기금 집행

의 효과성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 기후관련 국제포럼 개최 건수(회)는 1회 목표에 1회 추진으로 달성하였다. 다만, 기후 변화 국제협력 추진 사업의 지표로 국제포럼 개최 건수가 실효성,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한 지표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포럼은 말의 성찬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대응 선도도시 비전에 걸맞게 기후정의 차원에서 기후 피해국과 기후대응 후발국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맞는 지표를 새로 설정하는 것도 고민해보면 좋겠다.

2.1.3.4.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66	한강 수계의 폐기물과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줄인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관리	수질검사 항목 수(개)	352/ 341	달성 (103.2)	341 ↗
67	한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여 서해를 비롯한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물재생 센터 방류수질 관리)	수질오염 총량관리 (물재생센터 방류 수질관리) (mg/L)	0.16/ 0.42	달성 (247)	0.40~ 0.35 ↗
68	한강이 해양생태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력한다.	통합 물 관리 연구	연구기관의 교류·협력 횟수(회)	1/ 1	달성 (100)	1 ↘

-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의 이행을 위해 3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3개 이행사업, 3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관리를 포함한 3가지 이행사업 모두 2024년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수질검사 항목 수와 수질오염 총량관리(물재생센터 방류 수질관리) 성과지표는 이미 2030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상태이므로 2030년 목표의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였다.
- 수질검사 항목 수는 이미 2030년 목표를 초과하여 수질검사 체계가 확립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소관부서 의견에 따르면, 서울아리수본부는 법적 규제 이전 단계의 미량오염물질도 매년 항목을 늘려가며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규제되지 않는 미량이지만 난분해성 및 내분비계 장애 유발 가능성도 있어, 서울시는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은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한강의 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당 지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수질오염 총량관리(물재생센터 방류 수질관리(mg/L)) 지표는 한강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2024년도 목표치는 0.42(mg/L)였고 실적치는 0.16로 247% 초과 달성하였다. 2022년과 2023년 실적 역시 2030년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고 추세 또한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기존 2030년 목표치가 여전히 의미 있는 목표치인가 의문이 들지만, 소관부서 의견에 따르면 물재생센터 방류 수질은 한강 수질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유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 연구기관의 교류 협력 횟수 지표의 경우 1회 목표에 1회 실적으로 100% 달성하였다. 다만, 연구기관 교류 협력 횟수가 통합물관리에 직접적인 지표인지 상관관계가 부족해 보인다. 그 보다는 공동연구 수, 데이터 공유 체계, 정책 반영 실적 등의 지표가 더 적절해 보인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2.1.3.5.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69	서울의 숲, 산, 습지,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	나무 식재량(주)	유지관리/ 유지관리	달성	유지 관리 -
70	산림 내 훼손지에 자생수종을 식재하고 산불 예방을 강화하여 수목을 보호하는 등 서울의 산과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안전한 도시 숲 관리	산불 피해면적(㎡)	0.28만/ 0.95만	달성 (339.3)	0.80만 ↗
71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등 자연생태보호지역 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자연생태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자연생태보호지역 증가면적 (㎡) ('14년 대비)	282,747/ 69,000	달성 (409.8)	106,600 ↗
72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물종 복원 및 서식처 확충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	야생생물 증식 수 (마리)	1,600/ 20,000	미달성 (8)	22,000 ↘
73	외래종 유입 및 무단방사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종 확산의 원인을 제어한다.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면적(천㎡)	3,591천㎡/ 1,000천㎡	달성 (359.2)	1,000 ↗
74	서울시 계획과 개발 과정에 생물서식공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한다.	지속가능성 검토를 통한 법정계획의 생물다양성 증진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화 여부	포함 원료/ 평가지준에 포함	달성	기준에 생물다양성 포함 -

-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의 이행을 위해 6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6개 이행사업, 6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사업은 목표치의 8%만을 달성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2024년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안전한 도시 숲 관리와 자연생태보호지역 증가면적, 생태계교란생물 제거면적 지표 또한 300% 이상 초과 달성한 상태라 목표의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무 식재량(주)은 이미 2021년도에 목표 달성을 완료한 상태라 이행과제에 적합한 별도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 해당 지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 산불 피해면적(㎡) 지표는 2022년과 2023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다가 2024년에는 목표치를 달성(339.3%)하였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해마다 전국적으로 산불피해 면적과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인적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 또한 기후위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 산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발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면 산불방지를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이 중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서울은 산불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몇 배 이상 클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 예방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 피해면적 목표치를 과감하게 설정하고 적극적인 실적 관리를 해나가면 좋겠다.
- 자연생태보호지역 증가면적(㎡)은 2022년에 이미 목표치인 106,600㎡를 달성하였고(190,041㎡) 2024년에는 282,747㎡로 추가 증가한 상태라 2030년 목표치의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자연생태보호지역 지정에는 다년간의 절차가 필요하고, 서울은 지역 특성상 유지 이상으로 자연생태보호지역을 증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지표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 해당 지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사업은 야생생물 증식 수(마리)를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목표수를 20,000마리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치는 1,600마리로 달성률이 8%에 그쳤다. 2022년과 2023년에도 달성률이 28.2%, 36.8%에 그칠 정도로 3년 동안 성과가 미미하다. 관련 부서의 진단처럼, 기후환경의 변화로 야생생물 증식뿐만 아니라 방사 후 생존까지 고려한 정책 방향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면, 최근 실적치와 부서 의견을 참고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 해당 지표의 목표치는 현실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 2024년 생태계교란생물제거 면적(㎡) 지표는 252.4% 초과 달성하였다. 해마다 제거면적 목표치를 1,000천㎡로 설정하였고 2022년부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제거면적이 아니라 생태계교란생물 분포 면적 비율이 훨씬 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행과제의 목표는 생태계교란생물 분포 면적을 줄여나가는 것이므로 제거면적보다는 분포 면적 비율이 현실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 구축이 어렵다면 기존 자료가 구축된 서울시의

주요 서식지(생태계보호지역 등)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화 여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였다. 지표는 서울시 계획과 개발 과정에 생물 서식공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하는 과제의 관련 지표이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이 주류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정계획이나 개발 과정에 이들 가치를 반영하고 통합하는 것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서울시는 도시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을 통합해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시 평가 기준에 생물다양성 증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제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표를 대체하는 지표를 개발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해당 지표는 조기 달성된 자료로 별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1.4. 함께 만드는 서울

2.1.4.1.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75	서울시민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주거지 역과 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 부담가능한 주택의 확충을 통해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공공임대·공공 지원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비율 (%)	11.8/ 11	달성 (100.7)	12 ↘
76	수도권 광역체계와 연계하여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 리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수단분담율 (%)	통계치 미집계/ 66.0%	통계치 미집계	67.3 -
77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활성화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	0/ 10	미달성 (0)	10 ↘
78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자연, 역사, 문화, 미 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며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미래유산 선정 건수 (건)	0/ 10	미달성 (0)	10 ↘
79	빈곤층,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시 민들에 대한 재난 시 구호체계를 강화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조성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 (가구)	27,304/ 23,300	달성 (117.2)	23,700 ↗
80	미세먼지의 농도를 2016년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mu\text{g}/\text{m}^3$)	18/ 18	달성 (100)	15 ↗
81	공원녹지서비스의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고 여성, 아동, 노 인, 장애인 등의 공공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 장한다.	일상에서 만나는 생활정원 확대	생활정원 녹화면적 (km^2)	0.62/ 1	일부달성 (62)	6 ↘
82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 대 도시권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강화한다.	소통·공유의 지역 상생공동체 조성	MOU 체결 건수(누계) (개)	89/ 90	일부달성 (98.9)	114 ↘

-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의 이행을 위하여 8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이에 따른 8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2024년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 초미세먼지 농도 성과지표 등 3개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100% 이상으로 나타났고, 생활정원 녹화면적(62%), MOU 체결 건수(98.9%)는 일부달성,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미래유산 선정 건수는 미달성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의 경우 2024년 통계치가 현재 발표되지 않아 실적 집계에서 제외되었다.
- 2024년도 달성률 추세를 보면,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 초미세먼지 농도 성과지표 등은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비율,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미래유산 선정 건수, 생활정원 녹화면적, MOU 체결 건수(누계)는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24년 실적치 11.8%를 기록하며 목표(11%) 대비 100.7%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대규모 택지 공급이 제한적이고 주택 시장의 변동성이 큰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된다. 다만, 2030년 목표인 12% 달성을 위해서는 공급 물량 확보뿐만 아니라 주거 품질 향상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향후에도 성과목표를 상회하는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도권 광역체계와 연계하여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인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2024년 목표치를 66.0%로 설정하였으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가 통계 확정 시차로 인해 실적치가 집계되지 않았다. 성과 관리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자체적인 중간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하거나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데이터 환류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은 2024년 목표치 10%이나 달성률 0%로 미달성하였다. 소관부서 확인에 따르면, 2023년 1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시민참여단의 역할도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개별 사업이 종료될 때마다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무리가 있었기에 사업종료 후에도 추진계획 상 사업 및 지표가 유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요 행정계획을 추진하면서 청년,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는 도시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참여 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미래유산 선정 건수는 2024년 목표 10건 대비 실적 0건에 그치며 달성률 0%로 미달성하였다. 소관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최근의 정책 방향이 신규 선정이라는 양적 확대보다는 이미 선정된 유산의 유지·보수 및 시민 홍보 등 질적 관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표상의 미달성이 지속되는 것은 계획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유산 보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소관부서의 관리 중심 행정을 반영하여 지표 자체를 현실화하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는 보다 나은 미래유산 발굴·선정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래유산 아카이빙 자료 구축 건수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였다. 아카이빙을 통해 시민 제안 등을 통한 발굴 및 위원회 심의 선정, 모니터링 및 기록화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는 2024년 실적 27,304가구를 기록하여 목표 (23,300가구) 대비 117.2%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집

중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적 폭우나 화재 등 각종 재난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정비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전망 구축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과제인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사업은 초미세먼지 농도 지표에서 2024년 실적 $18\mu\text{g}/\text{m}^3$ 를 기록하여 목표치($18\mu\text{g}/\text{m}^3$)를 달성하였다.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승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 구역’ 운영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대한 핀셋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동아시아 맑은 공기 네트워크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해 광역적 오염원 관리에 대한 공동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 생활정원 녹화면적은 2024년 실적 0.62km^2 를 달성하며 목표를 일부 달성하였다. 골목길과 주택가 등 시민의 일상 속에 정원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30년 6km^2 달성을 목표로 매년 1km^2 씩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하는데,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쓰고, 또한 시민 정원사 양성 등 민간 참여형 관리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서울 대도시권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소통·공유의 지역 상생공동체 조성’ 사업은 MOU 체결 건수 누계 89개를 기록하며 목표를 일부달성하였다. 전년도에 체결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목표를 상향하여 1건이 부족했다. 체결건수가 증가한 것은 지역 간 상생 교류가 점차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단순 협약체결을 넘어 전문가 자문 및 교차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채널을 다양화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 간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2024년도 성과점검 결과 주거, 안전, 초미세먼지 분야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미래유산 선정 건수, 생활정원 녹화면적 분야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향 추세이거나 장기 미달성 중인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에 기반한 사업 재구조화 또는 지표 현실화를 추진함으로써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향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1.4.2.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83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개소 수(개소)	5/ 4	달성 (125)	4 ↗
84	학대,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확보	유지/ 유지	달성	유지 -
85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모든 시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한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시정권고 이행률 (%)	100/ 75	달성 (133.3)	유지 ↗
86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상습적 고액 체납 및 탈세 징수를 대폭 강화한다.	체납징수 강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	26.3/ 17.8	달성 (147.8)	19.0 ↗
87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근절한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점)	8.8/ 8.08	달성 (108.9)	8.5 ↗
88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를 확대한다.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 (건)	21/ 26	일부달성 (80.8)	30 ↗
89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예산액 (백만원)	7,597/ 500,000	미달성 (15.2)	700,000 ↘
90	모든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권을 보장한다.	와이파이 소외없는 서울 조성	공공와이파이 공급	운영/ 운영	달성	운영 -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명)	22,260/ 20,000	달성 (111.3)	21,000 ↘
91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시행	컨설팅 자치구 수 (개)	12/ 18	일부달성 (66.7)	25 ↘

-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의 이행을 위하여 9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10개의 이행사업과 10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2024년에는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개소 수,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확보, 시정권고 이행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공공와이파이 공급,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등 7개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100% 이상으로 나타났고,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와 컨설팅 자치구 수 등 2개 성과지표는 일부달성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참여예산액은 달성률 12.8%로 전년과 유사하게 현저히 낮은 미달성 수치를 기록하였다.
- 2024년도 달성률 추세를 보면,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개소 수, 시정권고 이행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는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며 상향 추세이며,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확보와 공공와이파이 공급은 유지, 시민참여예산액, 컨설팅 자치구 수는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정체되거나 하향 추세를

보여 정책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개소 수는 2024년 125%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가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시민들이 강력범죄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범죄예방디자인(CPTED)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확보는 2024년 목표를 달성하였다. 아동 대상 범죄 및 학대 문제는 매년 엄중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만큼, 현장 대응 인력인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정 인원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는 2024년 실적 108.9%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시정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청렴 교육 및 제도적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는 2024년 달성률이 80.8%로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주민감사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시민참여 예산액은 2024년 달성률이 12.8%에 머물며 목표치를 현저히 밑도는 미달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소관부서 확인 결과, 2022년 이후 지역단위 사업의 자치구 전환 및 예산 구조 조정으로 인해 시 차원의 실적 집계 수치가 급감한 구조적 원인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소관부서와 논의 하에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목표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서는 전문가 및 소관부서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시민참여예산 비율로 성과지표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 자치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자치구 수는 2024년 달성률 66.7%로 하향된 일부 달성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지자체 관련 예산의 변동 및 자치구의 참여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단순한 컨설팅 횟수 채우기에 그치지 않고,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자치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관리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2024년 실적치가 147.8%로 상승 곡선을 그리며 달성하였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징수 활동과 더불어,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징수 시스템 고도화가 병행된 결과로 보인다. 정의로운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는 2024년에도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공급도 목표를 달성하였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급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시는 범죄 예방과 아동 보호 등 안전 분야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률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청렴도 향상 그리고 정보화 교육 등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시민주민감사와 시민 참여 예산 등 시민 주도성 분야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장기간 미달성 중인 지표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인을 진단하고,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동력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 2.1.4.3.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4년 실적치/ 목표치	24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92	해외도시와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협약에 따른 지식 및 정책의 공유를 강화한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강화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건)	49/ 20	달성 (245.0)	20 ↗
93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성과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SDGs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 지원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누적 건)	159/ 146	달성 (108.9)	176 ↗
94	해외 도시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협력 사업 건수 (건)	40/ 34	달성 (117.6)	34 ↗
95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서울시·시민사회·기업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지속가능발전위 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 안건 수 (개)	33/ 28	달성 (117.8)	40 ↗
96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ODA를 통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 진출 사업 추진	해외사업 신규 수주 (건)	4/ 4	달성 (100)	5 ↘
97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남북협력을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서울-평양 생활협력 단계적 활성화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 미시행/ 생활협력분야 지속확대	미달성	생활 협력 분야 지속 확대 -

-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의 이행을 위하여

6개 이행과제, 6개 이행사업 및 성과지표를 각각 설정하였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 협력 사업 건수, 위원회 회의 안건 수, 해외사업 신규 수주 등 5개 지표는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며 글로벌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반면,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경색 국면으로 인해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 건수는 사업 미시행에 따른 미달성(0%) 상태가 지속되었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와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협력 사업 건수, 위원회 회의 안건 수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상향 추세를 보인다. 한편, 해외사업 신규 수주 건수는 목표치는 달성했으나 하향 추세를 보인다.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 지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외 여건의 영향으로 미달성이 지속되고 있다.
-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는 2024년에 목표를 초과 달성(245%)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실적치 49건은 전년도(39건)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로, 이는 서울시의 우수한 행정 사례를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스마트 도시, 기후위기 대응 등 서울시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누적 건)는 2024년도 108.9% 달성을 기록하였다. 이는 글로벌 선진도시로서 서울의 발전 경험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국제사회 및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지식공유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제적 동반관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현행화와 적극적인 지식공유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 협력 사업 건수는 2024년 실적 40건으로 목표(34건) 대비 117.4%의 달성률을 보이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기구 유치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서울시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등 글로벌 현안을 다루는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교류 협력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안건 수는 2024년 117.8% 달성을 기록하였다. 2023년에는 일부달성에 그쳤으나, 2024년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보아 서울시가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큰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위원회의 역할이 단순 심의를 넘어 글로벌 협력 의제 발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외도시와의

교류 성과를 시정에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밀도 있는 안건 발굴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해외사업 신규 수주는 2024년 실적 4건으로 목표(4건) 대비 100% 달성률을 나타냈다. 이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서울의 우수 행정 모델이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선진도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현지 실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ODA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지속적인 성과 확대를 위해 성과지표의 목표치 또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 지표는 최근 몇 년간 남북 관계 경색 및 대외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며 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본 이행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이행하기 어려운 외교 및 정무적 환경 변수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해당 과제를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로서 계속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현재의 과제를 지속한다면, 변화된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목표 설정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2024년 서울시의 글로벌 교류 협력 분야는 우수정책 공유,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 협력 사업 건수와 해외사업 수주 등 대외 지향적 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량적 확대를 넘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대외 변수에 유연한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내실 있는 국제적 통솔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2.2. 2025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점검 결과

2.2.1.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

2.2.1.1. 모든 형태의 빈곤 완화를 위한 노력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⁶⁾ /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1	서울형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디딤돌소득 참여 가구 수	7,097/ 6,660	달성 (106.6)	7,260
		기초보장 수급자 모니터링 관리	일반시민 기초보장 수급자 비율(%)	5.0/ 2.7	달성 (185.2)	2.75
2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이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금융복지 상담건수	35,745/ 33,000	달성 (108.3)	33,500
3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생활 환경 위기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여 나간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25,081/ 25,500	일부달성 (98.4)	26,000
4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안전 보장을 위해 재난에 취약한 주거환경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	29,870/ 25,100	달성 (119)	25,600

- <모든 형태의 빈곤완화를 위한 노력>의 이행을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와 5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5년의 5가지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살펴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디딤돌 소득참여 가구 수, 일반시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금융복지상담 건수와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는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다. 반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는 일부 목표 수준(98.4%)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디딤돌 소득참여가구 수를 살펴보면 2030년 7,26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에는 7,087명으로 목표 수준인 6,660명을 넘어 당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지표는 2025년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인원’에서 확장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디딤돌소득 참여 가구 수’로 변경되었다. 두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꾸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 2024년과 2025년의 성과지표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성과지표의 명칭 변경과 함께 지표 구성 및 개수가 확대된 점이라 할 수 있다. 2024년에는 총 4

6) 본 보고서의 실적치는 '26년 1월 기준으로 수합되었으며, '25년 일부 지표의 최종 실적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개의 성과지표가 제시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인원’, ‘금융복지 상담 건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등 복지 지원 규모와 수급 수준을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주로 활용되었다.

- 반면 2025년에는 성과지표가 5개로 증가하였으며, 기존 지표 중 일부는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거나 확대되었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인원’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디딤돌소득 참여가구 수’로 변경되어 정책 범위가 디딤돌 소득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은 ‘일반시민 기초보장 수급자 비율’로 조정되어 지표의 값은 같으나, 지표의 측정 대상과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정비되었다. 또한, 2025년에는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와 같은 취약계층 안전관리 관련 지표가 새롭게 추가되어 기존의 경제적·복지적 지원 중심 정책에서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관리 영역까지 정책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25년의 성과지표 체계는 단순한 지원 규모 측정에서 벗어나 복지정책의 대상 확대와 정책 영역 확장을 반영하도록 재구성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2024년과 2025년의 금융복지 상담 건수를 비교한 결과, 금융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금융복지 상담 건수는 33,929건으로 목표치 25,000건 대비 135.7%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상담 건수가 35,745건으로 증가하고 목표 또한 33,000건으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108.3%의 달성률을 보였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등 금융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방안으로는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상담 인력 및 비대면 상담체계 확대가 필요하며, 금융교육 및 재무관리 지원 등 예방 중심의 금융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는 2024년 목표인 45,000가구에 미치지 못했으며, 목표 달성률 또한 57.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2025년에는 지원 가구 수가 25,081가구로 목표치 25,500가구의 98.4%에 도달하여 일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치가 현실적으로 조정되면서 실제 사업 수행 수준과의 격차가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더욱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 연계를 확대하여 위기 가구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지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2.1.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 확보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5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애고,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	5,108/ 5,000	달성 (102.2)	5,000

-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 확보>의 이행을 위해서 1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1개의 이행사업, 1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5년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은 102.2%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24년과 2025년의 먹거리 안전 및 영양균형 관련 성과지표를 비교한 결과, 정책 추진 방향뿐 아니라 성과지표의 구성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2024년에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주요 성과지표로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횟수,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 도시텃밭 조성면적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UN-SDG 2번(Zero Hunger)은 원래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의 기아 종식을 목적으로 개발된 특성상, 서울시에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2025년에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서는 대부분 지표를 삭제 및 통합하였다.
- 2025년에 바뀐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 확보’로 구체화 되었으며, 성과지표 또한 일부 조정되어 취약계층의 영양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된 특징이 나타난다. 2024년에 다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던 지표 구성에서 벗어나, 2025년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월평균 관리 인원’을 중심으로 성과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는 서울시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로 저출생이 떠오르면서,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을 꾸준히 관리하여 저출생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해당 지표는 서울의 임산부 수가 매년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부 예산 삭감이 있었고, 이에 목표치도 하향 조정되었다. 2025년 실적은 5,108명으로 목표치 5,000명 대비 102.2%의 달성률을 기록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정책 방향으로서는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관리 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건소 및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종료된 사업이지만 지역 농산물 유통 확대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먹거리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먹거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1.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6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사업을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출생아 대비)	71/ 70	달성 (101.6)	90
7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을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정책을 통하여 자살 건수를 대폭 줄인다.	자살률 모니터링 관리	자살률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명)	통계치 미집계/ 19	통계치 미집계	11.6
8	마약, 알코올, 인터넷 및 도박 등 모든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중독자 사례관리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	6,805/ 6,000	달성 (113.4)	11,000
9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건수를 2015년의 절반으로 줄인다.	교통사고 사망률 모니터링 관리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7/ 205	일부달성 (99)	감소 (\)
10	건강취약계층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기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	131,222/ 103,000	달성 (127.4)	115,000
11	서울형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서울형 공공의료 강화	시립병원 이용자 수	2,523,340/ 2,693,000	일부달성 (93.7)	3,121,920

-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의 이행을 위해서 6가지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6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5년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 등은 100% 이상 달성하였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시립병원 이용자 수는 일부 달성을, 자살률은 통계치 미집계로 나타났다.
-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은 71%로 목표치 70% 대비

101.6%의 달성률을 기록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는 6,805건으로 목표치 6,000건 대비 113.4%의 달성률을 보이며 중독 관리 서비스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는 131,222명으로 목표치 103,000명 대비 127.4%를 기록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7명으로 목표치 205명 대비 99% 수준을 기록하여 일부 달성에 그쳤고, 시립병원 이용자 수 역시 목표 대비 93.7% 수준으로 나타나 공공의료 이용 확대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살률의 경우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 않아 성과 판단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 특히,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 사망자 수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실제로 2022년 221명에서 2023년 177명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212명으로 목표 수준에 일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207명으로 목표 수준(205명)에 조금 못 미치어 99%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24년과 2025년의 성과지표를 비교해 보면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목표는 유지되고 있으나, 성과지표의 구성과 관리 방식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4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 자살률,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 교통사고 사망자 수,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 보건지소 수, 중독질환 예방 교육 지원 건수 등 총 9개의 성과지표를 통해 공공보건, 정신건강, 교통안전, 건강취약계층 관리 등 다양한 보건정책 영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였다. 대부분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는 성과가 나타났으나, 자살률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일부 지표에서는 목표 대비 일부 달성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 반면 2025년에는 성과지표가 6개로 조정되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표를 통합하고 핵심 건강정책 중심으로 성과 관리 체계를 재구성한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감염병 대응 훈련, 보건지소 운영, 중독 예방 교육 지원 등 운영 중심 지표는 제외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자살률,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 교통사고 사망자 수,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 시립병원 이용자 수 등 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 향후 정책 방향으로서는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생애 초기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관리와 자살 예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속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마약·알코올·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 중독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안전 교육, 보행자 보호 정책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아울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이용 활성화를 통해 건강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1.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12	취학 전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호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6.1/ 55	달성 (102)	60%
13	모든 서울시민은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기술훈련 및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서울시민대학 운영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수	21,022/ 14,190	달성 (148.1)	40,000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서울런)	서울런 회원 수	37,642/ 35,000	달성 (107.5)	60,000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	134/ 135	일부달성 (99.3)	142
14	서울시민이 취업 및 직업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취득할 기회를 확대한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기술교육원 교육 수료율	93/ 90	달성 (103.3)	90.2
15	글자해독능력, 산술능력, 기술의 활용 능력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문해교육 이수자 수(누적)	2,868/ 2,800	달성 (102.4)	7,675

-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의 이행을 위해 서 4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6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5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 서울런 회원 수, 기술교육원 교육 수료율, 문해교육 이수자 수는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였다. 반면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는 일부 달성(99.3%)으로 집계되었다.

-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56.1%로 목표치 55% 대비 102%의 달성률을 기록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는 공공 보육 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정책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는 21,022명으로 목표치 14,190명 대비 148.1%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서울런 회원 수는 37,642명으로 목표치 35,000명 대비 107.5%를 달성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는 134개소로 목표치 135개소 대비 99.3% 수준을 기록하여 일부 달성에 그쳤으며,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고용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교육원 교육 수수료율은 목표치 90%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직업교육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며, 성인 문해교육 이수자 수 또한 2,868명으로 목표치 2,800명 대비 102.4%를 기록하여 기초문해교육 확대 정책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
- 2024년과 2025년의 교육 분야 성과지표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성과지표의 구성과 정책 대상 범위를 일부 확대·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 기술교육원 교육 수수료율,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 참여자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수자 수 등 다양한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관리하였다. 이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103.8%),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141%), 기술교육원 교육 수수료율(102.7%),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111.3%),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수자 수(194.7%) 등 일부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반면 여성 직업훈련 참여자 수(68.8%)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여 평생교육 참여 확대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 반면 2025년에는 성과지표 구성이 일부 재편되면서 평생학습과 교육 접근성 확대 정책이 강화된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기존의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인 평생교육 지표 외에도 '서울런 회원 수'와 같은 교육격차 해소 정책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어 교육 기회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지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목표 수준을 조정하거나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성과 관리 체계를 보완하였다.
- 향후 정책 방향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공보육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지

속적으로 높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민대학과 같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직업 능력 개발과 자기 계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서울권과 같은 온라인 학습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학습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기술교육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1.5. 성 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16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이행/ 이행	달성	이행
17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평 등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여성관리자 양성	여성관리자 양성비율	45.7/ 33.3	달성 (137.2)	33.8

- <성 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에서 2024년 4개의 이행과제, 4개의 성과지표에서 2025년에는 2개의 이행과제, 2개의 성과지표로 변경되었다.
- 먼저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과 ‘여성관리자 양성비율’은 모두 달성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먼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방식에서 지표의 변화가 나타났다. 2024년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건수’가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되었다. 해당 지표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추진 건수’는 278건으로 목표 300건 대비 79.4%의 달성률을 기록하여 일부 달성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인지적 분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평가 적용 범위가 목표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2025년에는 성과지표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로 신규 도입되었다. 이는 정책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건수와 같은 단일 활동 중심의 지표에서 벗어

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정책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해당 지표는 시행계획이 정상적으로 수립되고 이행되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평등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다음으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와 관련된 여성 관리자 양성 정책에서도 성과의 변화가 확인된다. 2024년 ‘여성 관리자 양성 비율’은 40.7%로 목표 33.2% 대비 122.6%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는 조직 내 여성 인재 발굴 및 육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2025년에는 ‘여성 관리자 양성 비율’이 45.7%로 나타나 목표 33.3% 대비 137.2%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여성 관리자 비율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조직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와 리더십 발휘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 2024년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 추진과 여성관리자 양성 정책을 중심으로 성평등 정책의 실행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25년에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성 리더십 확대 성과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표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2025년에는 특히 여성관리자 비율이 2024년 40.7% 달성률을 보였다면, 2025년에는 4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조직 내 성평등 문화가 점차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 앞으로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관리자 양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직 내 여성 리더십 확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가 다양한 정책 및 행정 분야에서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재 육성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때 성평등 정책은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성과를 동시에 강화하며 성평등 사회 실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2. 활력을 더하는 경제정의 도시

2.2.2.1.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18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 발급률	99.6/ 99.3	달성 (100.3)	99.6
19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8%를 달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누계) (MW)	1,599/ 1,448	달성 (110.4)	2,616
20	건축물 부문과 교통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건물에너지 효율화	그린 리모델링 (노후 공공건물) (개소)	35/ 36	일부달성 (97.2)	1,079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전기차 보급대수(누계)	122,995/ 113,889	달성 (108)	신차 등록 대비 전기· 수소차 비율 50%
21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도시를 선도하 기 위하여 서울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중소 기업 육성을 확대한다.	기후테크 기업 지원	기후테크기업 지원 수	411/ 183	달성 (224.6)	200

-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는 2차 전략에 비
해 다소 축소된 4개의 이행과제, 5개의 이행사업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차와 가장
달라진 점은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 목표보다는 실천사업 위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2025년도에는 5개의 성과지표 중 1개만 일부 달성, 나머지
4개는 달성으로 80%의 달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에너지 효
율화 사업도 97.2% 달성으로 사실상 목표치를 거의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025년 달성률 추세는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지만, 2030 목표가 변하
지 않는 지표에 대해서는 추세를 판단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 발급률도 꾸준히 목표치를 높여와서 2022년 97.5%, 2023년 98%, 2024년
98.2%, 2025년 99.3%로 높아졌는데,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하였고, 2025년 99.6%로
이미 2030 목표를 달성한 만큼 사업에 큰 차질이 없다면 목표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누계)의 경우 1,599MW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030 목표
(2,616MW)를 5년 앞둔 시점에서 1,000 MW 이상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2028년까
지 건물임대 및 신규건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
전량은 신에너지(연료전지)가 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반을 재생에너지로 구분되는 태양
광과 바이오, 혹은 폐기물처리를 통한 재생에너지가 차지한다. 강동구의 연료전지, 강
서구, 강남구, 마포구, 노원구 등 대규모 폐기물처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에너지 효율화는 서울시 탄소배출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므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2022년 137개소, 2023년 312개소로 증가하다가 2024년 51개소로 줄어들면서 2025년 목표가 36개소로 감소하고, 실제 이행된 사례도 35개로 축소되어서 2030 목표인 1,079개소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 보인다. 소관부서 문의 결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정부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24년 이후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실적치가 일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시 차원에서 공공건물의 참여 및 개선을 독려하고, 민간건물의 저탄소 전환 시책 참여를 유도하면서 의무화 단계 도입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후 2030년에는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증가할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의무화와 더불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행력을 제고하고, 민간 건축물의 경우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저리 용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전기차 보급 대수(누계)는 최근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총등록 대수가 202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5년 12월 기준, 등록된 차량수는 3,158,598대이며, 하이브리드 포함 친환경차 424,568대, 경유차 887,929대, LPG와 휘발유 차량이 1,846,101대이다⁷⁾. 총 등록 대수 중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여전히 낮지만, 신규 등록 차량 중 친환경차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기차는 2024년 대비 2025년 등록 대수가 20.82% 증가하여,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세(21.59%)에 버금가는 양상을 보인다. 경유차는 전년 대비 6만 대 이상 줄어든 반면 전기차는 17,463대 증가하였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한 연료별 통계자료도 포함하여 전기차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가 되어야 한다.
- 기후테크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기술 등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기술 산업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도시를 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확대하고자 2024년부터 기후테크 기업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편 소관부서에 따르면, 녹색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업명이 기후테크 산업지원으로 변경된 점도 있어,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는 녹색 중소기업 지원 대신 기후테크기업 지원으로 지표명을 변경하였다. 목표였던 183개 사업을 224% 초과하여 지원한 만큼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를 하고 창업과 기술개발 지원 등

7) 서울시 정보 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35341894>

다각화된 형태로 지원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성과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국가 38대 기후테크 분류⁸⁾에 따른 통계를 함께 작성해 두면 향후 R&D 지원에서도 공평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사업의 개수를 넘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었는지 데이터를 축적하면 후발 주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2.2. 포용적 경제활력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22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5,493/ 6,250	일부달성 (87.9)	6,500
23	성별임금격차 개선으로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성평등 임금공시 대상기관 수	51/ 43	달성 (118.6)	43
24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 상태의 청년 비율을 대폭 줄인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수	3,303/ 3,300	달성 (100.1)	4,000
		서울 매력일자리 추진	매력일자리 참여자 수	3,573/ 3,500	달성 (102.1)	3,500
25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이주민, 장애인의 노동권 관련 사업(취약노동자 권리구제 사업)	노동자권리 구제건수 (서울노동권익센터)	158/ 200	일부달성 (79)	300
26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개발, 취업교육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노후준비를 활성화한다.	고령자 취업훈련	고령자 취업훈련 참가자 수	3,185/ 2,200	달성 (144.8)	3,650

○ 〈포용적 경제활력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목표는 3차 계획이 시작되면서 7대 이행과제에서 5대 이행과제로, 9개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6개로 축소되었다. 2차 계획의 그린뉴딜 일자리는 매력일자리로 변경되었고,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이나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등의 목표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단일화되었다.

○ 총 6개 이행사업과 지표 중 2개(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노동자권리 구제 건수)를 제외하고 4개 사업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2030 목표에 대한 달성추세는 사업 첫해로서 과거 비교치가 없기는 하지만 1차연도에 성평등임금공시 대상기관의 수가 이미 2030년 목표인 43개를 넘어섰으며, 서울 매력일자리 참여자 수도 3,500명을 넘어서 일부 목표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 일자리 관련된 목표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청년실업감소, 고령자 취업으로 구분되

8)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https://ctis.re.kr/menu.es?mid=a10304010400>

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천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회약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향후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수와 매력일자리 참여 규모를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하여 목표 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나, 최근 AI 활용이 극적으로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신규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취업 교육은 2025년 50플러스 재단 등이 참여하여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기술을 받아 2026년 5개 캠퍼스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와 돌봄, 기술교육 등을 중심으로 수개월의 교육 후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인데, 2030년까지 은퇴 연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생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을 위해 새롭게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성과지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지표로 변경되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 입법이 추진됨에 따라 법안이 마련되면 공시의무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2030 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노동자 권리구제 건수는 2021년 이후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 예산 규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예산 축소로 목표 대비 38.2% 달성으로 목표에 미달한 바 있으며, 2024년 73.3%, 2025년 79%로 일부 달성에 그쳤다. 그러나 2025년 47억 원에서, 2026년 55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사업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법리상담부터 권리구제 등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들이 회복되어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2.2.3. 과학기술 혁신 장려로 산업 경쟁력 강화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27	미래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 창업기업 성장 지원	기술 기반 창업기업 성장 지원(개)	1,433/ 1,400	달성 (102.4)	1,800
28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AI 인재양성	AI 분야 인재 양성 수(누적)	3,462/ 2,845	달성 (121.7)	9,745

- <과학기술 혁신 장려로 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는 2차 계획에서 3개의 이행과제로 나뉘어 있었으나 2개의 이행과제, 그리고 2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로 설정되었다. 2차 계획 중 대중교통 활성화는 본 목표와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에 2개의 목표 설정은 적절해 보인다.
- 2개 목표 모두에서 2025년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2030 목표가 2차 계획보다 상향 조정된 목표의 경우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고부가가치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지원은 1,433개로 사무공간 지원(창업지원 시설)부터 투자사 매칭,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글로벌 진출까지 고려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된 캠퍼스타운 라이즈 사업도 연계되어 2025년 서울 소재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에 212억 원을 투입하고 약 1,000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 인재 집중 발굴 프로그램도 AI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누적 인원수 3,462명으로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위한 핵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있다. 2030년 목표 9,745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AI 활용 분야를 다양하게 개척할 수 있는 시니어 그룹과 기업 자문 매칭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업을 배출하는 방안도 시도 중이므로 해외 투자기관이나 박람회 진출까지도 지원 규모를 늘려볼 필요가 있다.

2.2.2.4.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29	인권관점을 시정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를 적극 실천한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시정권고 이행률	83/ 80	달성 (103.8)	89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사회적 약자 인권실태 조사 횟수(누적)	2/ 2	달성 (100)	12
30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	생활임금 지급률 (생활임금 적용대상 기관)	100/ 100	달성 (100)	100

-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목표는 3차 계획에서 2개의 이행과제로 축소되었으나 기초보장제도는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목표에서 다루고 있고, 인권단체 지원사업이 더는 유효하지 않아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행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하는 것은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 달성률을 살펴보면, 3개 이행사업과 성과지표는 모두 2025년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다만, 사회적 약자 인권실태 조사 횟수가 누적 횟수로 목표가 설정되었고, 2030 목표가 12회로 정해져 상·하반기 각 1회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보인다. 따라서 2030년까지 해마다 인권실태 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추적조사가 필요한 목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인권실태 조사 결과 중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는지를 함께 조사하여 보완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앞서 2024년 평가에서 언급하였듯이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위탁 등 계약을 맺은 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시급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에서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있는데, 20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고시에 따르면 시급 11,779원으로 2024년보다 3% 인상되었으며, 최저시급(10,030원)보다 1,749원이 높게 책정되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겠다.

2.2.3. 쾌적한 기후환경 선도도시

2.2.3.1.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31	서울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을 교체한다.	아리수 안심 서울 조성	노후상수관 정비율(%)	101.8/ 99.0	달성 (102.8)	99.0
32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며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으로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한다.	CSOs 관리를 통한 하천 수질개선	CSOs 저류조 설치(m³)	6.3만/ 6.3만	달성 (100)	24.9만
		수질오염 총량관리(물재생 센터 방류수질 관리)	수질오염 총량관리 (물재생센터 방류 수질관리/mg/L)	0.217/ 0.45이하 적정	달성	0.45이하 적정
33	지속적인 자연기반해법 저영향개발을 통한 도시 물순환을 회복한다.	서울시 불투수율 개선사업	빗물관리 대책량(m³/hr)	170,331/ 170,000	달성 (100.2)	390,000
34	한강 수계와 지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연형 하천(호안) 복원사업	자연형 호안 복원(km)	2.7/ 2.7	달성 (100)	26년 사업 종료 후 신규지표 발굴
35	물 관리를 위하여 시민참여형 환경 감시활동을 지원한다.	시민자율 환경감시단 운영	시민자율 환경감시단 환경순찰 횟수	1,054/ 900	달성 (117.1)	900

-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의 이행을 위해 5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6개 이행사업, 6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5년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노후상수관 정비율을 포함한 6개 지표가 모두 100% 이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노후상수관 정비율(%)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다만, 2025년 자료에 의하면 정비율 목표치는 99%인데 실적치가 101.8%로 제시되고 있어 표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성과 해석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추진실적 자료에 의하면 당해연도 노후상수관 정비목표가 89.2km였고, 실적이 90.8km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라리 지표 평가를 위한 목표치를 당해연도 정비대상 상수관 길이(km)로 수정하고 실적치 또한 정비구간 상수관 길이, 이에 따른 달성률로 조정하는 것이 자료 해석이 명확해질 것 같다.
-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하는 과제의 관련 지표로는 CSOs 저류조 설치(m³)와 수질오염총량관리(물재생센터 방류 수질관리(mg/L)) 등 2개가 제시되고 있다. CSOs 저류조 설치 지표의 경우 2025년에 목표치 6.3만m³를 100% 달성하였다. 2022년부터 4년 동안 목표를 100% 달성하고 있으므로 2030년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 하천 수질 개

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SOs 저류조 설치로 기대했던 한강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하천의 수질 개선 효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교차 검토하기 위해 비교란에 저류조 설치의 직접 영향을 받는 주요 하천 수질 현황(BOD) 자료를 첨부하면 지표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질오염총량관리의 경우 목표치는 0.45 이하 적정이었고 실적치는 0.217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2030년 목표치가 0.45 이하 적정이기에 2025년에 이미 그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유지로 성과 관리가 필요한 지표이다.

- 빗물관리 대책량(m^3/hr)은 ‘지속적인 자연기반해법 저영향개발을 통한 도시 물순환을 회복한다.’ 과제의 관련 지표이다. 2025년에 새로 설정된 빗물관리 대책량은 목표치 $170,000\text{m}^3/\text{hr}$ 에 실적치 170,331로 목표 달성이었다. 서울시의 불투수포장면적을 줄이고 한편으로 빗물관리 대책량을 늘려나가는 것은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해 중요하므로 관련 지표의 연도별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지면 좋겠다.
- 자연형 하천(호안) 복원(km) 지표는 목표치 2.7km를 달성하였다. 당초 본 지표는 관련 사업이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이라 신규사업과 지표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소관 부서 문의 결과, 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아 사업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한강수계와 지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024년 ‘물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한다’라는 이행과제는 2025년에 ‘물 관리를 위하여 시민참여형 환경 감시활동을 지원한다.’로 변경되면서 성과지표 또한 ‘민간지원단체 수’에서 ‘시민자율 환경감시단 환경순찰 횟수’로 변경되었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 중단에 따라 사업 자체가 종료된 것이 이유로 보인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그동안 민간단체의 창의적인 수질보전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행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여 하천 보호와 수질보전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2.3.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36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한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확대	(자원)재활용률	통계치 미집계/ 72	통계치 미집계	73
37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ESG 경영 전환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이하 규모 기업 종사자 대상 ESG 인력 양성 교육 참가자 수	83/ 65	달성 (127.7)	100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 추진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 추진	지속시행/ 지속시행	달성	지속시행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의 이행을 위해 2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3개 이행사업, 3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통계가 미집계된 생활폐기물 재활용 확대 사업을 제외한 두 개의 사업은 2025년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중소기업 이하 규모 기업 종사자 대상 ESG 인력 양성 교육 참가자 수 지표는 목표치 65명에서 실적치 83명으로 초과 달성하였다.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기업은 한정적인 재정과 인력 등의 부족으로 ESG 경영 도입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다. 기업 종사자들의 ESG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낮은 상태라, ESG 인식증진과 기초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5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기에 매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 추진 성과지표는 ‘지속시행’과 같이 추상적이어서 측정과 평가가 좀 더 용이한 정량적인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6년부터 ESG 경영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 ESG 경영보고서 발간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같이 ESG 경영보고서도 지자체별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서울시 내에 있는 ESG 경영보고서 발간 공공기관 수로 지표를 변경하면 좀 더 정량화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2.3.3.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도시 실현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38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풍수해 인명피해 모니터링 관리	풍수해 인명피해 (명)	0/ 1.6	달성	1.3명 유지
39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교육_서울에너지드 림센터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 운영	센터 방문객 수 (명)	50,403/ 50,000	달성 (100.8)	100,000
40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CO ₂)	45,107/ 전년대비 감축	달성	31,530
41	탄소중립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대응 기금을 확대 운용한다.	기후대응기금 확대 및 운용 개선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편성규모 (백만원)	32,781/ 10,000	달성 (327.8)	10,000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도시 실현>의 이행을 위해 4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4개 이행사업, 4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5년 목표 달성 여부를 보면 풍수해 인명피해, 센터 방문객 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대응기금지출사업 편성 규모 등 4개 지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풍수해 인명피해 지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0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기후위기 심화로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인명과 재산피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생각하면 촘촘한 수해 안전망 구축으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펼쳐져야 한다. 그런 의지를 담아 본 지표의 2030년 목표치를 과감하게 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 센터 방문객 수(명)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2025년 한해 50,403명이 센터를 방문하였다. 광역환경교육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센터 방문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만, 단순 방문객 수가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과제의 적절한 지표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인식 제고'에 국한하더라도 단순 방문객 수보다는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인식 제고의 척도로서 더 적합해 보인다. 자치구 협력과 지역 역량 강화를 추가로 고려한다면 광역환경교육센터와 자치구 지역환경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광역환경교육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 횟수, 프로그램 다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광역환경교육센터 예산 총액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핵심 지표이다. 2025년 배출량을 살펴보면, 작년 대비 1,453(천톤 cO2)을 감축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이런 속도로는 2030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는 건물, 교통, 폐기물 등 전 분야의 감축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서울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역산해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달성률과 달성량을 매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향후 배출량 목표, 부문별 감축 기여도, 목표 대비 누적 진도 등 다방면으로 실적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 수립한 제2차 계획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960만 톤이나, 2025년 수립된 제3차 계획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153만 톤이다. 소관부서 확인 결과, 이는 국제 기준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 산정 기준이 개선(메탄(CH₄)의 지구온난화지수(GWP) 변경 반영(기존 21 → 28))되었기 때문이다.
-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편성 규모(백만 원)는 목표치인 100억을 327% 초과 달성해 327여억 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부터 지속해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목표치를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

2.2.3.4.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42	한강 수계의 폐기물과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줄인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관리	수질검사 항목 수	357/ 357	달성 (100)	357

-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의 이행을 위해 1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1개 이행사업, 1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5년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100% 달성하였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관리 사업의 핵심은 수질검사 항목 수를 대폭 늘려 상시로 수질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수질검사 항목 수가 적절한 지표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소관부서 의견에 따르면, 서울 아리수 본부는 법적 규제 이전 단계의 미량

오염물질도 매년 항목을 늘려가며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규제되지 않는 미량이지만 난분해성 및 내분비계 장애 유발 가능성도 있어, 서울시는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은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한강 오염 예방과 깨끗한 아리수 음용을 위해 해당 지표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검사 항목별로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2.3.5.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43	서울의 숲, 산, 습지,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모든 시민이 생태계 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원도시 서울	정원도시 서울 관련 조성된 동행매력정원(수)	497/ 340	달성 (146.2)	26년 사업 종료 후 신규 사업발굴
44	산림 내 훼손지에 자생수종을 식재하고 산불 예방을 강화하여 수목을 보호하는 등 서울의 산과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안전한 도시 숲 관리	산불 피해면적 (㎡)	0.6만/ 1.7만	달성 (283.3)	1.2
45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물종 복원 및 서식처 확충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	야생생물 증식 수(마리)	1,700/ 1,000	달성 (170)	1,000
46	외래종 유입 및 무단방사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종 확산의 원인을 제어한다.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면적(천㎡)	2,943/ 1,000	달성 (294)	1,000

-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의 이행을 위해 4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4개 이행사업, 4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정원도시 서울을 포함한 4개의 이행사업은 모두 2025년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여 순조로운 추진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 정원도시 서울 관련 조성된 동행매력정원(수) 지표는 목표치를 146% 달성하였다. 기존 푸른도시국을 정원도시국을 변경하고 ‘정원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 다만, 2026년에 계획한 정원이 조성 완료되면 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라, 종료 후 공백없이 후속 생태복원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신규 사업과 관련 지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 야생생물 증식 수(마리)는 2024년도에 야생생물 증식 목표치를 20,000마리로 제시하였으나 실적은 1,600마리에 그쳐 달성률이 8%에 지나지 않았다. 기후환경의 변화로 단순 증식을 넘어 방사 이후의 실적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면서 2025년도 목표치를 1,000마리로 하향 조정하였고, 그 결과 올해에는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산불 피해면적(㎡) 지표는 2022년과 2023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다가 2024년과 2025년에는 목표치를 달성(각 339.3%와 283.3%)하였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서울은 산불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몇 배 이상 클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 예방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 피해면적 목표치를 과감하게 0(㎡)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실적 관리가 필요해 보이나, 소관부서 문의 결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피해의 대규모 확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목표치를 일부 하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산불피해면적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대형 산불을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생태계교란생물제거 면적 지표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이어 2025년도에도 300%가량 초과 달성하였으나 ‘생태계교란생물 분포 면적 비율’로 성과지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행과제의 목표는 생태계교란생물 분포 면적을 줄여나가는 것이므로 제거면적보다는 분포 면적 비율이 현실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 구축이 어렵다면 기존 자료가 구축된 서울시의 주요 서식지(생태계보호지역 등)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사업도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성과지표 또한 야생생물 증식 수에서 생물서식공간 조성 수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야생생물 증식의 성공은 관련 생물의 야외서식지가 충분히 복원되거나 조성되었을 때 최종 성공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또는 조성 수가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2.4. 함께 만드는 포용 도시

2.2.4.1.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도시 조성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47	서울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거안정 복지)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지원주택 공급 수(누적)	890/ 900	일부달성 (98.9)	1,150
48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일시적 거동불편자, 외국인 등 모든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통계치 미집계/ 66.9	통계치 미집계	67.3
		교통 약자 지원	장애인콜택시 대수 &법정대수 대비율	818&152%/ 854&150%	일부달성	854& 150%
49	서울의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역사, 문화 유산을 보존, 관리한다.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미래유산 아카이빙 자료 구축건수 (누적)	30/ 30	달성 (100)	180
50	2045년까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11\mu\text{m}/\text{m}^3$ 수준으로 낮춘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서울 초미세먼지 ($\mu\text{m}/\text{m}^3/\text{년}$)	18/ 16	일부달성 (88.9)	13
51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과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강화한다.	서울-지역 간 우호교류 협약체결 및 추진	MOU 체결 지자체 건수(누적)	90/ 93	일부달성 (96.8)	114

-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도시 조성〉의 이행을 위하여 5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이에 따른 6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2025년도 미래유산 아카이빙 자료 구축 건수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100%로 나타났고, 지원주택 공급 수, 장애인콜택시 대수&법정대수 대비율, 초미세먼지 농도와 MOU 체결 지자체 건수 등은 일부달성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의 경우 2025년 통계치가 현재 발표되지 않아 실적 집계에서 제외되었다.
- 지원주택 공급 수(누적)는 2025년 실적치 890을 기록하며 목표(900) 대비 98.9%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대규모 택지 공급의 한계와 주택 경기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거 복지 확충을 위한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된다.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은 도시의 포용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2030년 목표인 1,150 달성을 위해 공급량 유지와 더불어 노후 임대주택의 품질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도권 광역체계와 연계하여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인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인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2024년 실적치에 이어 2025년에도 국가 통계 확정 시차 문제로 인해 통계치가 적시에 발표되지 않았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 자체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성과점검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성과지표인 교통 약자 지원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대수&법정대수 대비율은 818대와 152%로 일부달성하였다.

-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이행사업을 위한 성과지표가 2024년 미래유산 선정 건수에서 2025년 미래유산 아카이빙 자료 구축 건수(누적)로 수정되었다. 신규 선정 건수라는 양적 확대보다는 이미 선정된 미래유산의 보존 상태 점검 및 시민 홍보 등 질적 관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25년도 목표치 30건을 100% 달성하여 미래유산 보존의 가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자발적인 보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재구조화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미세먼지 농도 저감 과제인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사업의 성과지표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5년에도 목표치인 $16\mu\text{g}/\text{m}^3$ 를 상회하는 $18\mu\text{g}/\text{m}^3$ 수준을 기록하며 일부 달성(88.9%)에 그쳤다. 이는 대기질 개선 정책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기상 여건 및 국외 오염물질 유입 등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의 영향이 큼을 시사한다.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미세먼지 농도 정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 구역' 확대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대한 세밀한 배출원 관리를 다각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서울 대도시권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소통·공유의 지역 상생공동체 조성’ 사업의 MOU 체결 지자체 건수는 2025년 96.8% 일부 달성하며, 2024년도에 이어 일부 달성하였다. 상생공동체 조성을 위해 서울과 지역 간의 교류 채널을 다양화하고, 전문가 자문 및 통합 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2025년 점검 결과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분야에서만 성과를 달성하고, 주거, 교통, 기후환경과 서울-지역 간 우호 교류 분야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포용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일부 달성 및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2.4.2.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52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상습적 고액 체납 및 탈세 징수를 대폭 강화한다.	체납징수 강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22.2/ 18	달성 (123.3)	19
53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근절한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점)	82.7/ 85	일부달성 (97.3)	88
54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를 확대한다.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	15/ 26	일부달성 (57.7)	30
55	시민참여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예산 비율	0.019/ 0.01	달성 (187)	0.02
56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지원	지속가능발전 세미나 회의 개최 건수(누적)	1/ 1	달성 (100)	6

-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의 이행을 위하여 5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5개의 이행사업과 5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2025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시민참여예산 비율, 지속가능발전 세미나 개최 건수 등이 100% 이상을 달성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와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 등은 일부달성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2025년 실적치 22.2%를 기록하며 목표(18%) 대비 123.3% 성과를 달성하였다.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기법을 고도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포용적 구제 방안을 병행하는 등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5년도 목표(85점) 대비 일부 달성 (82.7점) 수준에 머물러 2024년도에 비해 하향 추세를 보인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엄격한 잣대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년 대비 성과가 정체되고 있는 만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조직 내 부패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는 목표(26건) 대비 일부 달성 (15건) 수준에 머물러 달성률이 2024년 80.8%, 2025년 57.7%로 점진적으로 하향하고 있으며 여전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정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을 감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시민·주민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시민참여 예산제 이행사업의 성과지표는 2024년 시민참여 예산액에서 2025년도에는 시민참여 예산 비율로 수정되었다. 결과적으로 2025년도 성과지표 실적치는 0.019%로 목표치 0.01%를 대폭 상회하는 187%를 달성하였다. 이는 2022년 이후 지역단위 사업의 자치구 전환 및 예산 구조 조정으로 인해 시 차원의 실적 집계 수치가 급감한 구조적 원인의 확인에 따라, 소관부서와 논의 하에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목표치를 조정한 결과로 보인다.
-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지표는 2024년 컨설팅 자치구 수에서 2025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세미나 회의 개최로 변경되었다. 성과 목표 1회이고 실적은 1회로 무난하게 달성하였다. 서울시는 단순한 컨설팅 횟수 확보를 넘어, 각 자치구의 재정 상황과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세미나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2025년 점검 결과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시민참여예산 비율, 지속가능발전 세미나 회의 개최 건수 등에서는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와 시민·주민감사 등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로운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미달성된 지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행정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2.4.3.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5년 실적치/ 목표치	25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57	해외 도시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SDGs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 지원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누적)	165/ 164	달성 (100.6)	189
58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서울시·시민사회·기업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누적)	8/ 5	달성 (160)	30
59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원한다.	ODA를 통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 진출 사업 추진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52/ 20	달성 (260)	20

-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의 이행을 위하여 3개 이행과제, 3개 이행사업 및 성과지표를 각각 설정하였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2025년도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 위원회 회의 안건 수와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등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100% 이상으로 나타났고, 2024년도 6개의 성과지표가 2025년도에는 3개로 축소되었다. SDGs 플랫

품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를 제외하고 다른 2개 성과지표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달성률이 높아져서 달성추세도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누적)는 2025년 목표치인 164건 대비 실적 165건을 기록하며 100.6%의 달성률을 나타냈다. 이는 2024년도의 달성률(108.9%)과 비교하여 수치상으로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년 대비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질 없이 초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된다. 이는 글로벌 선진도시로서 서울의 우수한 지속가능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향후 국제적인 지식공유 채널이 다변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단순한 사례 축적을 넘어 플랫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서울시만의 혁신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글로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의 2025년 성과지표인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는 목표치인 5건 대비 실적 8건을 기록하며 160%의 달성률을 나타냈다. 소관부서 문의 결과, 안전 수 자체는 당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는 회의 개최 건수로 지표를 변경하였다. 향후에는 목표 수치에 안주하기보다,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의제와 시정 현안을 연계한 깊이 있는 안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우수정책 해외 진출 기반 강화 이행사업의 성과지표인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2025년도 목표치 20건 대비 실적 52건을 기록하며 260%라는 초과 달성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 행정 시스템과 정책 모델이 글로벌 시장, 특히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강력한 경쟁력과 실질적인 수요를 입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유된 정책들이 현지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국가별 맞춤형 후속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가파른 성과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향후에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더욱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관리를 통해 글로벌 정책 확산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
- 결론적으로, 2025년 점검 결과 서울시는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 위원회 회의 안전 수, 그리고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등 주요 성과지표에서 모두 100% 이상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대외 협력 사업의 양적·질적 안정성을 입증하였다. 이는 전년도의 성과를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지표 관리를 통해 시정 전반에 정착시킨 결과로 평가된다. 향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 도시로서 서울의 혁신 경험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는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급변

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지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성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결과 요약 및 향후과제

3.1. 지속가능발전 평가결과 요약

3.1.1. 2024년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결과 요약

- 2024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4개 분야,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목표(이행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108개의 목표 달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
 - '24년 기준 달성 73개, 일부 달성 25개, 미달성 8개, 통계치 미집계 2개
- 108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2024년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의 비중은 67.5%이다. 지난 4개년 평가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년은 79%, '21년 69%, '22년 70%, 그리고 '23년은 69.5%로 집계되었다.

〈2024년 분야별 달성도 종합결과〉

분야	성과지표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통계치 미집계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사회 분야)	28개	18	10	0	0
활력있는 경제정의 도시(경제 분야)	24개	15	7	1	1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환경 분야)	32개	25	4	3	0
함께 만드는 도시(협력(거버넌스) 분야)	24개	15	4	4	1

- 분야별로 달성률을 살펴보면, 사회 분야의 경우 '23년 71%(=20/28*100)에서 '24년 64%(=18/28*100)로 하락하였으며, 경제 분야의 경우 '23년 71% (17/24*100)에서 '24년 62.5% (15/24*100)로 하락했다. 환경 분야는 '23년 69%(=22/32*100)에서 '24년 78%(=25/32*100)로 9%p 상승하였고, 협력(거버넌스) 분야는 '23년 63%(=15/24*100)에서 '24년 62.5%(=15/24*100)로 약간의 하락을 보였다.

〈2024년 분야별 달성률 추세 종합결과〉

분야	성과지표	이행상황 달성률 추세 결과			통계치 미집계
		증가	유지	감소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사회 분야)	28개	13	3	12	0
활력있는 경제정의 도시(경제 분야)	24개	7	5	11	1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환경 분야)	32개	15	11	6	0
함께 만드는 도시(협력(거버넌스) 분야)	24개	11	4	8	1

3.1.1.1. 사회분야

- 사회 분야: 5대 과제, 27개 세부목표(이행과제), 28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4년) 총 28개 성과지표 중 달성 18개, 일부달성 10개, 미달성 0개, 통계치 미집계 0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사회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세부목표 (이행과제)		'24년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미집계
			18	10	0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국민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		
	2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다.		○	
	3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이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		
	4	서울시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여나간다.		○	
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5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균형 있는 먹거리를 보장한다.	○		
	6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애고, 생물학적으로 취약계층인 5세 미만 아동, 청소년기,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상태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7	지방 농수산물 생산자와의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소규모 식량 생산은 물론 빈곤 및 정신건강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농업을 지원한다.		○	
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8	산모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한다.	○		
	9	5세 미만 사망자 수를 1,000명당 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한다.	○		
	10	법정감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 관리와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감염병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		
	11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을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정책을 통하여 자살 건수를 대폭 줄인다.		○	
	12	마약, 알코올, 흡연 및 도박 등 모든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		
	13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건수를 2015년의 절반으로 줄인다.		○	
	14	건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15	서울형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을 제고한다	○		
	16	유해물질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대책을 강화한다.	○		
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17	취학 전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호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18	모든 서울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		

	19	서울시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취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취득할 기회를 확대한다.	○		
	20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	
				○	
	21	어떠한 서울시민도 글자해독능력, 산술능력,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여성의 역량강화	22	서울시민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한다.	○		
	23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		
	24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		
	25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 등을 통하여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26	여성이 남성과 공평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		

○ 사회 분야는 5대 과제, 27개 이행과제와 28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8개 성과지표 중 2024년은 달성 18개, 일부달성 10개, 미달성 1개로 64%의 달성률을 보였다. 2023년 71% 달성률과 비교해 감소하였는데, 사업종료 혹은 목표치 과도하게 설정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 과제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과 금융복지 상담 건수는 각각 100% 이상 달성하였으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인원은 2024년 실적이 5,790명으로 목표치(6,600명)에 미치지 못해 목표 달성률이 86.9% 수준에 그쳤으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역시 목표(45,000가구) 대비 실적이 낮아 목표 달성률이 57.6%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는 2030년 목표(70,000가구)와 비교할 때 목표 대비 실적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상자 발굴 강화 및 제도 접근성 제고와 함께 목표 수준의 현실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과제 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에서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은 달성하였으나,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은 2024년 목표(14회) 대비 13회로 일부 미달하였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는 사항인 만큼 장기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은 2023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도시텃밭 조성면적 역시 최근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지표의 실적 변동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욱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과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과제 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에서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다수 지표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자살률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목표를 일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표는 이미 목표 수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실적을 보여 목표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자살률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주요 안전·건강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더 종합적인 지표 설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과제 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목표 달성을 위해 6개 이행과제와 7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으며, 대부분 지표는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4년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 등 일부 지표는 목표치에 미달하여 실적 변동 원인과 목표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단순 참여 인원 중심의 지표보다는 서울시 인구 대비 교육 참여자 수 증가율 등 상대적 지표로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과제 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 이행과제 4개 중 대부분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으나,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만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2024년 달성률 85.6%). 성별영향평가 추진 건수, 여성관리자 양성 비율, 안심이 앱 다운로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며, 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활용도, 폭력 사건 감소율, 양질의 일자리 확보 여부 등 실질적 성과 중심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1.1.2. 경제분야

- 경제 분야: 4대 과제, 24개 세부목표(이행과제), 24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4년) 총 24개 성과지표 중 달성 15개, 일부달성 7개, 미달성 1개, 통계치 미집계 1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경제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세부목표 (이행과제)		'24년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미집계
			15	7	2
6.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27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		
	28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8%를 달성한다.	○ ○		
	29	건축물 부문과 교통 부문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 ○	
	30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7대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카,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IT, 도시자원순환)을 증진한다.	○ ○		
7.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31	타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GDP, GRDP의 성장을 도모한다.	○		
	32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창의·혁신을 통한 산업 다각화로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3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		
	34	성별임금격차 개선으로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		
	35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 상태의 청년 비율을 대폭 줄인다.		○	
	36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	
	37	서울시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입안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		○	○
8.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38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과 행복한 삶을 위한 양질의 친환경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통계치 미집계
	39	미래 기술 기반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40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	○	○	
9.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4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중위소득 하위 43%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		
	42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	
	4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개선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4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 경제 분야는 18개 이행과제와 24개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개

성과지표 중 2024년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15개, 일부달성 7개, 미달성 1개, 미집계 지표가 1개 있어서 62.5%의 달성률을 나타내었다. 일부 2023년 71% 달성률과 비교해 감소하였는데, 사업종료 등 변화된 여건으로 인한 예산 감축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 과제 6.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목표는 7개 목표 중 5개 목표가 달성되어 71% 달성률을 보였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 발급률이나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량 목표인 1.5GW를 넘어서 1.3GW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최종에너지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1% 정도로 에너지자립률이 여전히 낮다. 전력자립률로만 고려한다면 약 18%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예산삭감이나 대지 확보의 한계로 인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2026년 이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서울시 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탄소 배출량의 약 70%를 담당하는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목표 대비 53% 달성으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홍보와 예산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 전기차 누적 등록 수가 증가하는 반면 경유차나 전체 등록차량수는 감소하여 자율주행차 등 전기차로의 전환은 안정화되고 있다. 안전과 충전 인프라 확대가 전환의 흐름을 더욱 강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과제 7.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목표는 9개 중 5개 목표가 달성되어 55.5%의 달성률을 보였다. 상생상회 등 농촌과의 상생 노력은 매장 방문자수의 급속한 확대를 통해 잘 운영되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나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성평등 임금 컨설팅 기관 수 역시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 외 청년 일자리 참여, 노동권익센터 운영, 관광기업 지원 등은 예산삭감 등으로 일부 달성에 그쳤다. 서울시 관광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는 2024년 관광 분야 중장기행정계획 수립 시기 미도래로 수립되지 않아 미달성되었다. 서울에 여러 대학이 소재하고 있고,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보니 서울시의 청년 고용률이나 창업지원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주요 지표가 된다. AI 도입으로 청년들의 고용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역량 강화 지원 및 고용 승계율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정책들이 필요해 보인다.
- 과제 8.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목표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표를 제외하고 3개 지표 중 2개가 목표를 달성하여 66.7% 달성률을 보였다. R&D 지원사업은 국가적인 삭감 상황에서도 96.14% 정도로 목표를 달성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캠퍼스타운 사업에 큰 피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로봇, 바이오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기여서 시 예산 대비

R&D 비중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캠퍼스타운의 스타트업 창업 육성을 통해 세계적 기업을 배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중소기업체들의 AI 기반 경영 컨설팅 등 소규모 사업체의 미래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양성된 청년 기술자들을 취업 연계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서 상호승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과제 9.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 노력〉 목표는 4개 세부계획 중 3개 달성,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 수(누적)가 98% 달성으로 일부달성에 그쳐 75%의 달성률을 보였다. 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 및 생활임금지급률은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의무화 규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형태의 불평등을 없애는 목표로써 인권 보호가 중심 목표로 정해졌는데, 인권침해 등 사례 검토를 통하여 향후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본 목표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서울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문제 해결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의 협력이 강화되면 데이터 기반 정책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행과정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복지 사각지대의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2025년 수립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서 제외되었지만, 서울시는 AI 발전으로 인한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와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해소 노력을 위해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형) 사업 등에서 추가적인 관심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1.1.3. 환경분야

- 환경 분야: 5대 과제, 31개 세부목표(이행과제), 32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4년) 총 32개 성과지표 중 달성 25개, 일부달성 4개, 미달성 3개, 통계치 미집계 0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환경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세부목표 (이행과제)	'24년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미집계
		25	4	3
10.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	45 서울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수질검사항목을 강화한다.	○		
	46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며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으로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한다.	○		
	47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	
	48 한강수계 유역의 수질, 수량, 수생생태계를 통합 관리한다.	○		
	49 한강 숲을 조성하고 천변습지와 자연 호안을 조성하는 등으로 한강 수계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	○	
	50 물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한다.			○
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생활화 지원	51 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		
	52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53 서울시민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	○		
	54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	
	55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	○		
	56 서울지역 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권고·지원한다.	○		
	57 시민의 친환경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구매 등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확대한다.		○	
	58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12.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조성	59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소비와 생산을 부추기는 조세 및 보조금 등 제도를 점검한 후 이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		
	60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		
	61 서울시 정책, 전략, 계획에 기후변화 대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		
	62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		○
	63 온실가스를 2005년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	○		
	64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사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		
	65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13.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	66	한강 수계의 폐기물과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줄인다.	○		
	67	한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여 서해를 비롯한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한다.	○		
	68	한강이 해양생태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력한다.	○		
14. 도시 내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 다양성 증진	69	서울의 숲, 산, 습지,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		
	70	산림 내 훼손지에 자생수종을 식재하고 산불 예방을 강화하여 수목을 보호하는 등 서울의 산과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		
	71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등 자연생태보호지역 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		
	72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물종 복원 및 서식처 확충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한다.			○
	73	외래종 유입 및 무단방사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종 확산의 원인을 제어한다.	○		
	74	서울시 계획과 개발 과정에 생물서식공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한다.	○		

○ 환경 분야는 4개 분야 중 가장 많은 수인 5대 과제, 30개 이행과제와 32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32개 성과지표 중 2024년은 달성 25개, 일부달성 4개, 미달성 3개로 78%의 달성률을 나타내었다. 2023년은 달성 23개, 일부달성 6개, 미달성 2개로 72%(통계치 미집계 제외)의 달성률을 보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달성률이 각각 81%, 75%, 78%, 72%임을 생각할 때 목표 달성률이 미세하게 하향 추세를 보이다 2024년도에 조금 상승하였다.

○ 과제 10.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에는 6개의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6개 이행사업, 7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고 6개 과제 중 4개 과제를 달성하였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민간지원단체 수가 0으로 유일하게 달성률이 0%였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2024년 정부 예산 중단에 따라 사업 자체가 종료된 것이 이유로 보인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그동안 민간단체의 창의적인 수질보전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행정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여 하천보호와 수질보전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 과제 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에는 9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9개 이행사업, 9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9개 과제 중 7개를 달성하였고 나머지 2개는 일부 달성하였다. (자원)순환이용률과 같은 일부 지표는 이미 2030년 목표치를 달성한 상황으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과제 12.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에는 6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7개 이행사

업, 7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7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달성하였고 나머지 1개는 미달성하였다. 이행과제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의 에너지자립마을 2.0사업은 기존 서울시 주도사업에서 자치구 관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목표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주체의 변화로 사업 동력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전환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과제 13.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에는 3개의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3개 이행사업, 3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3개 과제 모두 목표 달성하여 달성률이 100%였다. 수질검사 항목수, 연구기관의 교류협력 횟수와 같은 일부 지표는 이행과제에 부합하는 지표로의 변경과 내용의 구체화 등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이미 2030년 목표를 달성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표는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해 보인다.
- 과제 14.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에는 6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6개 이행사업, 6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6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달성, 1개 사업이 미달성했다. 사업별 달성률은 전반적으로 100%를 상회하였으나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사업’의 지표인 ‘야생생물 증식 수’는 달성률이 8%에 그쳐 매우 저조하였다. 기후환경의 변화로 단순 증식보다는 방사 이후의 실적까지 고려하는 정책 방향이 변화한 것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방향의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안전한 도시 숲 관리사업과 같이 2024년 달성률이 300% 이상되는 사업의 성과지표는 상향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시정의 변화로 추진 동력이 떨어진 에너지자립마을 2.0과 같은 사업은 다른 사업과 지표로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1.1.4. 협력분야

- 협력(거버넌스) 분야: 3대 과제, 24개 세부목표(이행과제), 24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4년) 총 24개 성과지표 중 달성 15개, 일부달성 4개, 미달성 4개, 통계치 미집계 1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협력(거버넌스)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세부목표 (이행과제)		'24년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미집계
			15	4	5
15.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75	서울시민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 부담가능한 주택의 확충을 통해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		
	76	수도권 광역체계와 연계하여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통계치 미집계
	77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78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자연, 역사, 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며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
	79	빈곤층,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들에 대한 재난 시 구호체계를 강화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조성한다.	○		
	80	미세먼지의 농도를 2016년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		
	81	공원녹지서비스의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공공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82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 대도시권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강화한다.		○	
16.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83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		
	84	학대,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		
	85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모든 시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한다.	○		
	86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상습적 고액 체납 및 탈세 징수를 대폭 강화한다.	○		
	87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근절한다.	○		
	88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를 확대한다.		○	
	89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
	90	모든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 ○		
	91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17. 지속가능 발전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92	해외도시와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합의에 따른 지식 및 정책의 공유를 강화한다.	○		
	93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성과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		

94	해외 도시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		
95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서울시·시민사회·기업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		
96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		
97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남북협력을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

- 협력분야의 이행계획은 3개 과제, 23개 세부 목표와 24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개의 성과지표 중 2024년도 달성된 것은 15개, 일부달성은 4개, 미달성은 4개, 미발표(통계 미집계) 1개로 62.5%의 달성률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사회안전망 및 글로벌 협력 지표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시민 참여와 문화유산 보존 등 정성적 가치가 포함된 지표에서는 다소 부진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통계 미집계 지표의 경우 국가 단위 데이터 산출 시차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이행 여부와는 별개의 행정적 공백으로 파악된다.
- 2024년 달성도가 일부달성 또는 미달성한 이행과제 및 이행사업은 총 8개로, 생활정원 녹화면적(62.0%), MOU 체결 건수(98.9%),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80.8%), 시민참여예산액(12.8%), 컨설팅 자치구 수(66.7%),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0%), 미래유산 선정 건수(0%),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미달성 사유를 분석해 보면, 남북 관계 경색과 같은 대외적 변수뿐만 아니라, 자치구 자율 운영 전환에 따른 시 예산 실적 감소, 선거 기간 중 서명 활동 제한 등 제도적·환경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 달성률 추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4개 성과지표 중 15개 지표가 100% 이상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특히 해외사업 신규 수주(100%)와 공공임대주택 비율(100.7%),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117.2%) 등은 목표치를 웃돌며 협력 분야의 성과를 견인하였다. 반면, 미래유산 선정이나 남북 생활협력과 같이 외부 요인에 민감하거나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지표들은 0%의 실적을 기록하며 하향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향후 성과 관리 체계에서 지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과제 15.〈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은 총 8개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개 이행과제(공공임대주택 비율 100.7%, 안전취약가구 점검 117.2%, 초미세먼지 농도 100%)는 2024년 모두 100% 이상의 우수한 달성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후위기와 주거 불안정이라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행정력이 집중된 결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이행과제(미래유산 선정 건수)는 실적 0건으로 미달성하였으며, 수도권 광역체제와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관련 사업(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2024년 국가 통계 발표 시차로 인해 통계치가 미집계되었다.

- 과제 16.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은 총 9개 이행과제, 10개 성과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2024년에도 7개의 지표(범죄예방인프라 125%,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확보 100%, 시정권고 이행률 133.3%,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47.8%,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108.9%, 공공와이파이 공급 100%,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111.3% 등)가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이는 투명한 행정 시스템 구축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이 실질적인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반면 나머지 3개의 경우(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80.8%, 시민참여예산액 12.8%, 컨설팅 자치구 수 66.7%)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 대외적 활동 제약으로 인해 일부 달성 또는 미달성이 발생하여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과자 17.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는 총 6개의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를 담고 있다. 이 중 2024년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이행사업은 5개(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245.0%,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 108.9%,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 협력 사업 건수 117.6%, 위원회 회의 안전 수 117.8%, 해외사업 신규 수주 100%)였으며, 서울의 정책 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1개 사업의 경우(생활협력 단계별 추진 0%)는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였다. 남북 관계 경색에 따른 생활협력 사업 역시 0%의 실적으로 대외 여건에 따른 한계를 보였다.
- 종합적으로 2024년 협력 분야는 주거, 안전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민의 직접적인 행정 참여와 직결된 참여예산제 및 시민감사 분야에서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생활협력 및 거버넌스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달성 지표에 대한 실무 부서 목표치 현실화 검토와 함께, 대외적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보완 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참여 활성화 및 미래유산 보존 활용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단순한 수치 관리를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3.1.1.5.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총평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20~2024년)은 '2030 지속가능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4대 전략·17대 과제·97개 이행과제·108개 성과지표라는 방대한 체계 아래 5년간 추진되었다. 이하에서는 5개년의 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주요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제3차 계획과의 연계 방향을 제시한다.

1) 주요 성과

제2차 이행계획의 전체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은 2020년 79%, 2021년 69%, 2022년 70.0%, 2023년 69.5%, 2024년 67.5% 수준으로, 5개년 평균 약 71% 수준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분야별로는 환경 분야가 5개년에 걸쳐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였으며, 사회 분야는 중반기까지 비교적 안정된 성과를 유지했지만 경제 및 협력 분야는 예산 변동과 사업 이관 등의 영향으로 후반기로 갈수록 달성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 성과를 살펴보면, 사회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금융복지 상담 건수, 여성 관리자 양성비율 등이 2030년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거나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도 2020년 43.8%에서 2024년 54.0%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30년 목표(60%)를 향한 긍정적 추세를 유지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AI 인재 양성,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등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보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생활 폐기물 감축률, 자연생태보호지역 증가 면적 등이 2030년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으며, 기후대응기금 편성 규모도 매년 목표를 대폭 상회하였다. 협력 분야에서는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SDGs 플랫폼 사례 공유, ODA 사업 수주 등 글로벌 교류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2) 주요 한계

5개년 동안의 목표 달성률이 71% 수준에서 정체된 점은 성과 관리의 체계성 측면에서 한계로 지적된다. 이상적인 사업 진행 모형에서는 연차가 더해질수록 목표 달성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하나, 제2차 계획에서는 이러한 개선 추세가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성과지표는 이행과제의 본질적 목표와 괴리가 있거나(안심이 앱 다운로드 건수로 여성 폭력 근절 평가 등), 목표치가 과도하게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시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업 축소·종료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민간 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삭감,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자치구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례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 시정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3) 보완 사항 및 제3차 계획과의 연계

제2차 계획 기간 중 도출된 평가 의견은 제3차 계획 수립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는 제2차 계획의 108개에서 64개가 삭제되고 24개가 신규 도입되어 제3차 계획에서는 총 68개로 재편되었다. 이는 기달성 지표 정리, 부적합 지표 교체, 중복지표 통합의 결과이며, 비현실적 목표치의 현실화(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70,000→26,000, 시민참여예산액→비율 전환 등)와 신규 정책 수요의 반영(기후테크, ESG, 고령자 고용, 서울런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3차 보고서에서 제안된 일부 의견(교통사고 중상자 수 추가, 수질검사 항목별 오염도 저감률 등)은 아직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향후 추진계획의 연차별 점검 과정에서 지속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서울시가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동시에 목표 달성률의 정체, 지표의 적합성 문제, 시정 변화에 대한 취약성 등 구조적 한계도 확인되었다. 제3차 계획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욱 실효성 있고 유연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2030년 목표 달성을 향한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미달성 지표 분석 및 정책 제언

제2차 계획의 2024년 미달성 지표는 8개로 관광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민간 지원단체 수, 에너지 자립마을 수, 야생생물 증식 수,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미래유산 선정 건수, 시민참여예산액,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이다. 미달성 지표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미달성 사유는 크게 정책 환경변화, 비 연례적 지표, 대외 여건 변화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책 환경변화는 다시 추진 주체의 변경과 정책 목표의 변경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시→자치구로의 추진 주체의 변경(에너지 자립마을 수, 시민참여예산액)과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의 정책 목표 변경(미래유산 선정 건수, 야생생물 증식 수)이 있다. 비 연례적 지표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일정 주기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관광계획 지속가능성 검토)은 추진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비연속 사업(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은 사업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지표에 해당하지 않아 2024년 미달성이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외 여건 변화는 국비 예산 중단(민간 지원단체 수),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사업 종료(생활 협력 단계별 추진)등이 성과 미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달성 지표가 확인된바, 조속한 해소를 위해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소관부서와 평가부서 간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성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미달성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며, 필요시 지표 조정, 소관부서 독려, 조직·인력 역량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대외 환경에 의존도를 최소화한 지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024년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 〉

구분	미달성 원인	지표명(사업명)	미달성 사유
정책 환경 변화	추진 주체 변경	에너지 자립마을 수 (에너지 자립마을 2.0)	市-자치구 업무 이관
		시민참여예산액 (시민참여예산제)	市-자치구 업무 이관
	정책 목표 변경	미래유산 선정 건수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 방향 변경 (선정건수 확대 → 질적 관리 집중)
		야생생물 증식 수	정책 방향 변경 (양적 확대→ 질적 관리)
비연 계적 지표	추진 시기 미도래	관광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여부 (관광분야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계획 수립 시기 미도래
	비연속 사업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완료로 시민참여단 활동 종료
대외 여건 변화	국정 변화	민간 지원단체 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국비 지원 중단
	국제정세 변화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 (서울-평양 생활협력 단계적 활성화)	남북관계 경색

3.1.2. 2025년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평가결과 요약

- 2025년은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시행 첫해로서, 제2차 계획의 평가결과와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재편된 68개 성과지표 체계가 처음 적용된 해이다. 2025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
 - 총 68개 성과지표 중 달성 52개, 일부달성 13개, 미달성 0개, 통계치 미집계 3개로 집계되었다. 미집계 지표를 포함한 달성률은 76.5%(=52/68×100)로서, 제2차 계획의 최종 연도인 2024년 달성률(67.5%)과 비교해 9%p 상승하였다. 이는 제3차 계획 수립 시 지표 체계의 현실화와 목표치 조정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나, 초년도 효과(base effect)를 고려하여 추후 연차별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 분야는 달성 15개, 일부달성 4개, 미집계 1개로 달성률 75%를 기록하였다. 경제 분야는 달성 13개, 일부달성 3개로 달성률 81%를 나타냈다. 환경 분야는 달성 17개, 미집계 1개로 달성률 94%를 기록하여 거의 모든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전 분야 중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협력 분야는 달성 7개, 일부달성 6개, 미집계 1개로 달성률 50%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달성률을 보였다.
- 제3차 계획 초년도인 2025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첫째, 환경 분야가 미집계 1개 지표를 제외한 전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여 가장 우수한 이행 성과를 보였다. 이는 제3차 계획 수립 시 현실성을 고려한 지표 선정과 적극적인 목표치 조정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 둘째, 협력 분야는 초미세먼지 농도, 청렴도 평가, 시민감사 건수, MOU 체결 건수 등에서 일부 달성이 다수 발생하여 향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수, 그린 리모델링, 노동자 권리 구제 건수 등 일부 지표가 목표에 일부 달성 수준에 그쳤으나, 성평등 임금공시, 기후테크기업 지원 등 신규 도입 지표에서는 양호한 초년도 성과가 나타났다.

〈2025년 분야별 달성도 종합결과〉

분야	평가년	성과 지표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통계치 미집계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사회 분야)	2025년	20개	15	4	0	1
활력있는 경제정의 도시(경제 분야)	2025년	16개	13	3	0	0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환경 분야)	2025년	18개	17	0	0	1
함께 만드는 도시(협력(거버넌스) 분야)	2025년	14개	7	6	0	1

3.1.2.1. 사회분야

- 사회 분야: 5대 과제, 17개 세부목표(이행과제), 20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5년) 총 20개 성과지표 중 달성 15개 일부달성 4개, 미달성 0개, 통계치 미집계 1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사회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세부목표 (이행과제)		'25년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미집계
			15	4	1
1. 모든 형태의 빈곤완화를 위한 노력	1	서울형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한다.	○		
	2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이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		
	3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생활환경 위기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여나간다.	○		
	4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안전 보장을 위해 재난에 취약한 주거환경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	
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 균형 확보	5	모든 형태의 영양결핍을 없애고,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6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사업을 시행한다.	○		
	7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을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 정책을 통하여 자살 건수를 대폭 줄인다.			통계치 미집계
	8	마약, 알코올, 인터넷 및 도박 등 모든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		
	9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건수를 2015년의 절반으로 줄인다.		○	
	10	건강취약계층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11	서울형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한다.		○	
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12	취학 전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호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13	모든 서울시민은 적절한 비용으로 기술훈련 및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		
			○		
				○	
	14	서울시민이 취업 및 직업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취득할 기회를 확대한다.	○		
	15	글자해독능력, 산술능력, 기술의 활용 능력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		
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여성의 역량 강화	16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		
	17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		

○ 사회 분야는 5대 과제, 17개 이행과제와 20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개 성과지표 중 2025년은 달성 15개, 일부달성 4개, 미달성 및 미집계 각 1개로 75%의 달성을 보였다.

- 과제 1. <모든 형태의 빈곤완화를 위한 노력>에서 2025년 기준 성과를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인원(7,097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2.7%), 디딤돌 소득참여 가구 수, 금융복지 상담 건수(35,745명) 등 대부분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였다. 반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는 목표치(25,500가구)에 일부 도달(25,081가구, 98.4%)하는 수준에 그쳤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독자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보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금융복지 상담 건수는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고용 연계 등 실질적 효과를 반영할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과제 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이행과제는 1개이며, 1개의 성과지표로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을 설정하였다. 2025년 기준 실적은 5,108명으로 2030년 목표(5,000명)를 이미 달성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다.
- 과제 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에서 이행과제 6개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 등 주요 지표는 2025년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은 71%로 목표 대비 101.6% 달성,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는 6,805건으로 목표(6,000건)를 초과 달성,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는 131,222명으로 목표(115,000명)를 상회하였다. 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7명으로 목표(205명)에 근접했으나 99% 달성에 그쳤고, 시립병원 이용자 수는 2,523,340명으로 목표 대비 93.7% 달성, 자살률은 2025년 미집계 되었다. 교통사고 지표는 중상자 수를 포함하는 등 평가 방법 개선을 제안해본다.
- 과제 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에서 이행과제 4개 중 2025년 기준 대부분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56.1%로 목표(55%)를 달성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는 21,022명으로 목표(14,190명)를 상회하였다. 서울런 회원 수는 37,642명으로 목표 대비 107.5% 달성, 기술교육원 교육 수료율은 103.3% 달성, 문해교육 이수자 수는 2,868명으로 목표(2,800명)를 초과 달성하였다. 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수는 134개소로 목표(135개소)에 근접하여 일부 달성(99.26%)에 그쳤다. 추후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확대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 신규 이행사업을 발굴하여 지표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과제 5. <성 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에서 이행과제 2개 중 2025년 기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지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여성관리자 양성비율도 45.7%로 목표(33.3%)를 크게 상회하여 137.2% 달성하였다.

3.1.1.2. 경제분야

- 경제 분야: 4대 과제, 13개 세부목표(이행과제), 16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5년) 총 16개 성과지표 중 달성 13개, 일부달성 3개, 미달성 0개, 통계치 미집계 0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경제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세부목표 (이행과제)	'25년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미집계
		13	3	0
7.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18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		
	19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을 확대한다.	○		
	20 건축물 부문과 교통 부문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	
		○		
	21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도시를 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확대한다.	○		
8. 포용적 경제활력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22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23 성별임금격차 개선으로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		
	24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 상태의 청년비율을 대폭 줄인다.	○		
		○		
	25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	
	26 고령자 맞춤 일자리 개발, 취업교육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노후준비를 활성화한다.	○		
9. 과학기술 혁신 장려로 산업 경쟁력 강화	27 미래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28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		
10.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29 인권관점을 시정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를 적극 실천한다.	○		
		○		
	30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 제3차 계획에서 경제 분야는 13개 이행과제와 16개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개 성과지표 중 첫째인 2025년 목표 달성률은 81%로 13개 목표를 달성하였고, 3개 목표를 일부 달성하였다.

○ 과제 7.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목표 중 기후테크기업 지원의 경우 2025년 컨설팅 수요 증가에 따라 목표 대비 높은 달성률

(224.6%)을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 확대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구조에 적합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원 다변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친환경 건물 연계형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지열·공기열·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도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과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정부의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정책 및 전력시장제도 변화와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과제 8. <포용적 경제활력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목표 중 사회적경제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이익분배라는 차원에서 미래 혁신 산업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AI로 인한 개인의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약은 사회통합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경험에 기반한 중장년, 고령층 취업사관학교의 운영도 재취업 및 노후 준비를 통한 경제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과제 9. <과학기술 혁신 장려로 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는 2개의 이행과제와 이행사업 및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목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여 100% 이행되었다. AI분야 인재양성수는 누적 목표로 2022년~2025년까지의 인재양성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수를 모두 합한 값이다. 따라서 3차 계획이 2차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됨을 이해하여야 한다. 미래기술 고부가가치 산업과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쟁력 목표는 중소기업 및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되어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왔으며, 유학생을 통한 세계적 기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과제 10.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목표는 2개의 이행과제로 집약되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인권실태조사, 생활임금 적용대상 기관 확산이 주요한 이행과제이다. 세 개의 이행사업에 대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사회적 약자 인권실태조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서 2030년까지 누적 횟수 12회 달성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인권침해 권고 이행률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생활임금지급률 역시 서울시 조례 등을 통해 의무화하고 있어 100% 달성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생활임금지급 적용대상 기관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3.1.1.3. 환경분야

- 환경 분야: 5대 과제, 16개 세부목표(이행과제), 18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5년) 총 18개 성과지표 중 달성 17개, 일부달성 0개, 미달성 0개, 통계치 미집계 1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환경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세부목표 (이행과제)		'25년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미집계
			17	0	1
10.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	31	서울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을 교체한다.	○		
	32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며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으로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한다.	○ ○		
	33	지속적인 자연기반해법 저영향개발을 통한 도시 물순환을 회복한다.	○		
	34	한강 수계와 지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35	물 관리를 위하여 시민참여형 환경 감시활동을 지원한다.	○		
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생활화 지원	36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한다.			통계치 미집계
	37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 ○		
12.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도시 실현	38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		
	39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 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		
	40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		
	41	탄소중립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확대 운용한다.	○		
13.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42	한강 수계의 폐기물과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줄인다.	○		
14.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43	서울의 숲, 산, 습지,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모든 시민이 생태계 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		
	44	산림 내 훼손지에 자생수종을 식재하고 산불 예방을 강화하여 수목을 보호하는 등 서울의 산과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		
	45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물종 복원 및 서식처 확충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한다.	○		
	46	외래종 유입 및 무단방사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종 확산의 원인을 제 어한다.	○		

- 환경 분야는 제2차 계획에서 제시된 30개 이행과제, 32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었으나 제3차 계획에서는 연구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서울시 소관부서 등과의 여러 차례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16개 이행과제와 18개 성과지표로 대폭 축소 조정되었다.
- 2025년은 총 18개 성과지표 중 통계치가 미집계된 1개 지표를 제외하고 17개 지표를 달성하여 달성률 94%를 보였다. 내용과 구성의 변화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달성률이 각각 81%, 75%, 78%, 72%, 75%임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 달성률을 고려해 성과지표 중 보수적으로 제시된 목표치는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고, 야생생물 증식 수나 생태계교란생물 제거면적과 같은 지표는 좀 더 과제에 부합하는 사업과 지표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과제 10.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의 이행을 위해 5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6개 이행사업, 6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5개 이행과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이 100%였다.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은 당초 2026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소관부서 확인 결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2028년까지 사업이 연장된 상황이며, 이후 신규사업과 지표 발굴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시민자율 환경감시단 운영’ 사업은 2024년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의 대체 사업과 지표로 보인다. 예산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을 아예 폐기한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
- 과제 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의 이행을 위해 2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3개 이행사업, 3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통계치가 미집계된 1개 사업을 제외하고 2개 사업이 목표치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66.7%였다. 자원재활용률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한 방편으로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다만, 통계치가 미집계된 상황이라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면 평가 시기 조절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 추진은 성과지표가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좀 더 구체화하거나 정량화된 지표로의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
- 과제 12.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실현>의 이행을 위해 4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4개 이행사업, 4개 성과지표로 설정되었다. 4개 사업 모두 2025년 목표치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100%였다. 성과지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중요한 성과지표이고 2025년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감축 속도가 더더 2030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교통, 산업, 폐기물, 건물, 에너지 모든 분야 감축 노력의 집대성인 까닭에 좀 더 적극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 과제 13.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의 이행을 위해 1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1개 이행사업, 1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고 2025년 목표치 달성률은 100%였다. 수질검사 항목 수를 해마다 늘려 꼼꼼한 수질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로, 서울아리수 본부는 법적 규제 이전 단계의 미량오염물질도 매년 항목을 늘려가며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미량오염물질은 난분해성 및 내분비계 장애 유발 가능성도 있어, 서울시는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항목 수를 늘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과제 14.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의 이행을 위해 4개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4개 이행사업 4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4개 사업 모두 2025년 목표치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100%였다. ‘정원도시 서울’ 사업은 2026년에 계획했던 정원이 모두 조성되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사업과 지표 발굴이 필요한 상태이고,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사업 역시 목표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달성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야생생물 증식이 적절한 사업과 지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1.1.4. 협력분야

- 협력(거버넌스) 분야: 3대 과제, 13개 세부목표(이행과제), 14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5년) 총 14개 성과지표 중 달성 7개, 일부달성 6개, 미달성 0개, 통계치 미집계 1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협력(거버넌스)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세부목표 (이행과제)		'25년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미집계
			7	6	1
15.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 조성	47	서울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	
	48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일시적 거동 불편자, 외국인 등 모든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동계치 미집계
	49	서울의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역사, 문화 유산을 보존, 관리한다.	○		
	50	2045년까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11\mu\text{m}/\text{m}^3$ 수준으로 낮춘다.		○	
	51	서울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과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강화한다.		○	
16.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52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상습적 고액체납 및 탈세 징수를 대폭 강화한다.	○		
	53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근절한다.		○	
	54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를 확대한다.		○	
	55	시민참여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		
	56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17. 지속가능 발전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57	해외도시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		
	58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서울시·시민사회·기업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		
	59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		

- 협력분야의 이행계획은 3개 과제, 13개 세부목표와 14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13개의 성과지표 중 2025년도 달성된 것은 7개, 일부 달성은 6개, 미발표(통계치 미집계) 1개로 집계되었다. 2024년과 비교했을 때 일부 지표의 목표 달성률은 다소 하락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기후 환경 기준의 강화와 외부 요인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통계 미집계 지표는 국가 승인 통계의 발표 시차로 인해 실적 확인이 늦어지는 행정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 2025년 달성도가 일부 달성 또는 미달성(통계치 미집계)한 이행과제 및 이행사업은 총 6개로, 초미세먼지 농도(88.9%), 지원주택 공급 수(98.9%), 장애인 콜택시 대수& 법정 대수대비율(818 & 15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97.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160%), MOU 체결 지자체(96.8%)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목표치 대비 실적의 절대적 수치는 낮지 않으나, 서울시가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정교한 이행 관리와 투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달성을 추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4개 성과지표 중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260.0%)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160%) 등 글로벌 협력 지표는 강력한 상향 곡선을 그리며 서울시의 정책 브랜드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반면, 주거권 보장이나 청렴도 지표 등 내부 행정 혁신과 밀접한 지표들은 달성률이 소폭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성과 관리의 중점이 외부 홍보와 확산에서 내부 내실화와 시민 체감도 향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 과제 15.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은 총 5개 이행과제 및 6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100.0%) 1개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다. 서울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결실을 보고 있으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98.9%)과 시민 건강과 직결된 초미세먼지 농도(88.9%)는 목표치 강화에 따라 일부 달성에 그쳤다.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지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 통계 시차로 인해 미집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과제 16.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은 총 5개 이행과제와 성과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2025년에도 3개의 지표(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23.3%, 시민참여예산비율 187.0%,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세미나 개최 건수 100.0%)만이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이 중 2024년과 2025년 모두 목표치를 100% 달성하며 꾸준한 성과를 보인 사업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지표 1개였으며, 나머지 2개의 경우(청렴도 평가,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는 일부 달성하였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지표는 실적이 2024년도에 비해 다소 저조하여 조직 문화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요구된다.
- 과제 17.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는 총 3개의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를 담고 있다. 이 중 2024년과 2025년 모두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이행사업은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와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 등 2개였으며, 나머지 1개의 경우(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 2024년에는 미달성이었으나, 2025년에는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이는 서울의 행정 시스템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 종합적으로 2025년 협력 분야는 역사 문화유산 보존,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시민참여 예산 확대,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지원과 글로벌 선도성 확보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안정적 주거권 확보, 교통 약자 지원, 시민의 직접 참여가 수반되는 감사 영역, 청렴도 평가와 초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환경 보호 분야에서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롭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3.2. 향후과제

3.2.1. 사회 분야 종합평가

사회분야에서는 제3차 계획이 시행된 2025년에는 전반적으로 실질적이고 집행 가능한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전보다 변경된 지표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몇 가지 지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부적합한 성과지표)

- 2번('25년) 금융·복지 상담 건수는 2030년 33,500명의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는데, 단순한 상담 건수 보다는 실제로 금융·복지 혜택을 받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대체하거나(예시: 금융·복지 연계 서비스 참여자 수), 또는 이를 확대하여 금융·복지뿐 아니라 고용까지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는 성과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예시: 금융·복지·고용 연계 서비스 참여자 수).
- 9번('25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목표에 근접했으나 하향 추세를 보여, 단순 사망자 수 외에 중상자 수를 포함하는 등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폭넓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11번('25년) 시립병원 이용자 수는 목표 대비 일부 달성에 그쳤으므로, 단순 이용자 수 외에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만족도 등 질적 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 (소극적 목표치 및 기달성 목표)

- 12번('25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56.1%)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2030년 목표(60%) 달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13번('25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수는 목표 수준에 근접하거나 달성하였으나,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확대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 신규 이행사업을 발굴하여 지표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타)

- 2025년의 경우,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 확보> 과제에서 1개의 지표만으로도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표의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현행 사회 분야 지표는 영유아·성인·고령자·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대상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으나,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독립 지표는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연차 점검 시 청소년(13~18세) 대상 정신건강·위기지원·사회참여 관련 보조지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2.2. 경제 분야 종합평가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 의견이 반영되어 제3차 계획에서는 전반적으로 집행 가능하고, 적절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5년이 3차 계획이 시작된 해라서 경제분야 목표 및 지표에 대한 평가 의견을 내기에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2차 계획과 연계된 몇몇 지표에 대해서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 (부적합한 성과지표)

- 29번('25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로써 사회적 약자 인권실태 조사 횟수가 설정되었는데, 연 2회 조사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따라서 조사 결과로서 인식개선 수준을 목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소극적 목표치 및 기달성 목표)

- 30번('25년)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의 생활임금지급률은 2차 계획부터 지금까지 100%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조례에 따라 서울시 산하기관 등 의무기관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몇 개의 기관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의무기관을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번('25년) 전기자동차 누적 보급 대수는 국가 및 지역 통계자료로 접근성이 좋은 반면, 신규 자동차 등록 수 중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제시한다면 경향이나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2.3. 환경 분야 종합평가

○ 환경 분야의 이행계획은 2024년과 2025년 계획 사이에 약간의 체계 변화가 있지만 크게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도시 실현,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의 이행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 및 보완 사항을 제안한다.

○ (부적합한 성과지표)

- 31번('25년) 노후상수관 정비율(%)의 목표치와 실적치를 %가 아니라 정비대상 상수관 길이와

정비구간 수관 상수관 길이를 표시하는 km 단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37번('25년)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 추진은 '지속시행'과 같이 추상적이어서 측정과 평가가 좀 더 용이한 정량적인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6년부터 ESG 경영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 ESG 경영보고서 발간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니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경영보고서 발간 공공기관 수'로 지표를 변경하면 정량화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45번('25년) 야생생물 증식 성과지표는 증식 목표치 20,000마리(24년)를 1,000마리(25년)로 하향 조정한 결과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이는 단순 개체 수 확대 중심 정책에서 방사 후 정착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질적 관리로의 정책 방향 전환이 원인이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또한 어떤 야생생물을 왜 증식하고 그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현재 성과지표가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사업과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성과지표 또한 야생생물 증식 수에서 '생물서식공간 조성 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야생생물 증식의 성공은 관련 생물의 야외 서식지가 충분히 복원되거나 조성되었을 때 최종 성공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또는 조성 수가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46번('25년) 생태계교란생물 제거면적 지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도에도 목표를 300%가량 초과 달성하였으나 '외래종 유입 및 무단방사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종 확산의 원인을 제어한다.'는 과제와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사업에 부합하는 최적의 지표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매년 생태계교란생물을 제거하더라도 유입과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 지표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지 못한다. 차라리 '생태계교란생물 분포 면적 비율'로 성과지표를 관리하면 좋겠다.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 구축이 어렵다면 기존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 분석이 가능한 서울시의 주요 서식지(생태계 보호지역 등)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소극적 목표치 및 기달성 목표)

- 34번('25년) 자연형 하천(호안) 복원사업 당초 26년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2028년 종료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추후 이를 대체할 신규사업과 지표 발굴이 필요하다. '한강 수계와 지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과제의 연관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생태계교란생물 관리', '하천의 시설물 총량제 관리' 등의 이행사업과 이에 따른 '생태계교란생물 면적 비율', '하천의 시설물 면적 비율' 등의 성과지표 검토를 제안한다.
- 40번('2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목표치가 '전년대비 감축'으로 제시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정부를 포함해 모든 지자체의 지상과제이기에 이런 목표치라면 매년 달성

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30년에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바가 있기에 이를 목표로 삼아 연도별로 환산한 배출량과 감축률을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면 좋겠다. 지금의 속도로는 2030년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적극적인 지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 (비현실적 목표치)

- 39번('25년)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광역환경교육센터 방문객 수의 2024년과 2025년 목표치와 실적치는 50,000명 언저리이다. 물론 2년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이 또한 광역환경교육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30년 방문객 수 100,000명은 너무 높은 목표로 보인다. 한편, 단순 방문객 수가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과제의 적절한 지표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인식 제고'에 국한하더라도 단순 방문객 수보다는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인식 제고의 척도로서 더 적합해 보인다. 자치구 협력과 지역 역량 강화를 추가로 고려한다면 광역환경교육센터와 자치구 지역환경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광역환경교육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 횟수, 프로그램 다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광역환경교육센터 예산 총액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 32번('25년) CSOs 저류조 설치(㎡)는 2022~2025년까지 4년간 목표치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CSOs 저류조 설치 목적이 설치를 통한 주요 하천 수질개선에 있기에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주요 하천의 대표 수질 현황 자료(BOD)를 지표 비교란에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5번('25년) 이행과제는 2024년 '물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한다'에서 '물 관리를 위하여 시민참여형 환경 감시활동을 지원한다'로 변경되면서 성과지표 또한 '민간지원단체 수'에서 '시민자율 환경감시단 환경순찰 횟수'로 변경되었다. 이는 국비 예산지원 종료의 결과로 보인다. 민간단체의 창의적인 하천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 관리 개선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사업으로 사업 및 성과지표 선정과 상관없이 복원해 추진하면 하천보전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2번('25년)의 핵심은 수질검사 항목 수를 대폭 늘려 상수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수질검사 항목 수 357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57개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을 기준치 이내로 100%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좀 더 직관적일 수 있

어서 지표의 보완이 요구된다.

- 43번('25년)은 2026년에 계획한 모든 정원이 조성되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 신규사업과 관련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의 숲, 산, 습지,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모든 시민이 생태계 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이행과제를 보면 기존 '동행매력정원(수)'가 최적의 성과지표였을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과 지표 개발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리예산의 지속적 증액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시민참여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민간단체와의 숲, 하천, 공원 관리 협약 전수와 같은 새로운 사업과 지표 개발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3.2.4. 협력 분야 종합평가

- 협력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포용적 도시 조성의 정의로운 제도 구축, 그리고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라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2024년과 2025년의 이행 성과를 종합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보완 사항이 도출되었다.
- (부적합한 성과지표 및 보완)
 - 49번('25년)의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은 2024년도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지표인 '미래유산 선정 건수'가 시의 행정 방향(신규 선정보다 유지 관리 집중)과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25년도에는 성과지표를 '미래유산 아카이빙 자료 구축 건수'로 바꾸어 실적을 달성하였다.
- (소극적 목표치 및 기달성 목표 상향)
 - 59번('25년)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는 2025년 목표(20건) 대비 실적 52건으로 260%라는 큰 폭의 초과 달성을 기록했다. 현재의 목표치는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가치와 국제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극적 수치로 판단된다. 글로벌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30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단순 수주 건수를 넘어 '글로벌 정책 확산 파급력' 등 새로운 이행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비현실적 목표치 재조정)
 - 55번('25년) 시민참여예산액 지표는 2024년 15.2%로 목표치 대비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이는 2022년 이후 사업 구조가 자치구 자율 운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 본청의 직접 예산 실적이 감소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2025년도에는 시민참여 예산 비율로 바꾸어 달성률 187%를 기록한 것은 적절한 성과지표 수정으로 판단된다.

○ (중복지표 및 대외 변수 관리)

- 2024년의 남북협력 추진 관련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 지표는 대외 정세 경색으로 인해 2022년 이후 0%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교·안보적 변수가 성과를 결정짓는 구조이다. 따라서 2025년도에 본 이행과제와 성과지표를 삭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기타 성과지표 관련 의견)

- 50번('25년) 기후환경 분야와 밀접한 ‘초미세먼지 농도’ 지표는 2025년 목표 강화($16\mu\text{g}/\text{m}^3$)에 따라 실적 $18\mu\text{g}/\text{m}^3$ 로 달성률이 96.8%에 머물렀다. 이는 지표 설정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행정적 노력 외에도 기상 요인 등 외부 변수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청렴도 평가와 시민 감사 등 정의로운 제도 구축 분야의 지표가 정체되거나 하향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정량적 수치 달성보다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질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결어

본 보고서는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20~2024년)의 최종 연도인 2024년과 제3차 추진계획(2025~2029년)의 첫해인 2025년의 추진실적을 동시에 점검한 전환기적 평가 보고서이다. 제6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가들이 집필 및 검토에 참여하여, 2024년 108개 성과지표 및 2025년 68개 성과지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였다.

2024년 제2차 이행계획의 최종 점검 결과, 108개 성과지표 중 달성 73개, 일부달성 25개, 미달성 8개, 통계치 미집계 2개로 나타나 달성률은 약 67.5%를 기록하였다. 이는 제2차 계획 기간 전체(2020~2024년)의 평균 달성률 약 71%에 약간 미치지 못하며, 계획 최종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분야별로는 환경 분야(78%)가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였고, 사회 분야(64%), 경제 및 협력 분야(62.5%)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제3차 추진계획의 초년도 점검 결과, 68개 성과지표 중 달성 52개, 일부달성 13개, 미달성 0개, 미집계 3개로 나타나 달성률은 76.5%를 기록하였다. 이는 제2차 계획의 2024년 달성률(67.5%) 대비 약 9%p 상승한 수치로, 제3차 계획 수립 시 지표 체계의 현실화, 목표치 조정, 부적합 지표의 교체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환경 분야는 미집계 1개(자원 재활용률)를 제외한 전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2차 계획의 5개년 운영 경험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여러 교훈을 남겼다. 첫째, 성과지표의 적합성은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행과제의 본질적 목표와 괴리되는 지표는 평가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제3차 계획에서의 대폭적인 지표 재편은 이러한 인식의 반영이다. 둘째, 목표치의 적정 설정이 중요하다. 과도하게 소극적인 목표는 이행 동력을 약화시키고,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는 현장의 사기를 저하한다. 셋째, 시정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예산 변동, 사업 이관, 정책 기조의 변화 등에 대해 지표와 목표를 적시에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차 추진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력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지표의 지속적 점검과 환류: 초년도 평가에서 부적합성이 드러난 지표(공공기관 ESG 경영평가 '지속시행', 야생생물 증식 수 등)에 대해서는 연차별 점검 과정에서 조기에 보완해야 한다.

둘째, 목표치의 탄력적 관리: 기후대응기금 편성 규모, 성평등 임금공시 대상기관 수 등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지표에 대해서는 과감한 목표 상향을 통해 정책적 도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협력 분야의 내실화: 2025년 협력 분야의 달성률이 50%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시민 참여, 청렴도 제고, 대중교통 활성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강화: 위원회가 형식적 자문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이

행계획의 점검과 환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글로벌 의제와 시정 현안을 연계한 밀도 있는 안건 발굴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고, 조례와 기본계획·이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정기적인 성과점검 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이러한 노력은 서울시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가속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등 서울시가 직면한 도전은 점점 더 복잡적이고 긴박해지고 있다. 제3차 추진계획이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표 관리의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시정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내재화되고 서울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6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러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며, 서울시가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별첨 1. 제2차 이행계획 및 제3차 추진계획 성과지표 비교표

〈제2차 계획 및 제3차 계획 사회 분야 지표 변화표〉

제2차 성과지표		비고	제3차 성과지표		비고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1	일반시민 기초보장수급자 비율	※핵심지표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인원	지표 변경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다임돌소득 참여가구 수	신규(지표변경)
3	금융복지 상담간수(건)		3	금융복지 상담 건수	
4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4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	-		5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	협력→사회 이동
5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지표 삭제	-	-	
6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횟수	지표 삭제	-	-	
7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		6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	
8	도시텃밭 조성면적	지표 통합	-	-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출생아 대비)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출생아 대비)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출생아 대비)	지표 통합	-	-	
11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	지표 삭제	-	-	
12	자살률(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8	자살률(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핵심지표
13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		9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	
14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핵심지표
15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		11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	
16	서울형 보건지소 수	지표 변경	12	시립병원 이용자 수	신규(지표변경)
17	중독질환 예방교육 지원 건수	지표 삭제	-	-	
18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13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19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		14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	
-	-		15	서울권 회원 수	신규
20	기술교육원 교육수료율		16	기술교육원 교육수료율	
21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	지표 삭제	-	-	
22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		17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	
23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지표 변경	18	문화교육 이수자 수(누적)	신규(지표변경)
24	교육 이수자수	지표 삭제	-	-	
25	성별영향평가 추진 건수	지표 삭제	-	-	
26	안심이 앱 다운로드(건수)	지표 삭제	-	-	
27	우리동네카운슬러 지정 개소 수	지표 삭제	-	-	
-	-		19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신규
28	여성관리자 양성비율		20	여성관리자 양성비율	

〈제2차 계획 및 제3차 계획 경제 분야 지표 변화표〉

제2차 성과지표		비고	제3차 성과지표		비고
29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 발급률		21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 발급률	
30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누계)		22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누적)	
31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기달성 지표	-	-	
32	그린 리모델링(노후 공공건물)		23	그린 리모델링(노후 공공건물)	
33	전기차 보급 대수(누계)		24	전기차 보급 대수(누계)	
34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통합	-	-	
35	녹색 중소기업 지원 수	지표 변경	25	기후테크기업 지원 수	신규(지표변경)
36	상생상회 월 방문객 수	지표 삭제	-	-	
37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	지표 삭제	-	-	
38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26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39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수	지표 삭제	-	-	
40	성평등임금 컨설팅 기관 수	지표 변경	27	성평등임금공시 기관 수	신규(지표변경)
-	-		28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수	신규
41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		29	매력일자리 참여자 수	
42	노동자권리 구제간수(서울노동권익센터)		30	노동자권리 구제간수(서울노동권익센터)	
-	-		31	고령자 취업훈련 참가자 수	신규
43	관광기업 지원 수	지표 삭제	-	-	
44	관광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여부	기달성 지표	-	-	
45	대중교통 수단분담율	지표 통합	-	-	
46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누적)	지표 삭제	-	-	
47	연구개발비 지원금액	지표 삭제	-	-	
-	-		32	기술 기반 창업기업 성장 지원	신규
48	AI 분야 인재 양성 수		33	AI 분야 인재 양성 수(누적)	
49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지표 삭제	-	-	
50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 수(누적)	지표 삭제	-	-	
51	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		-	-	
-	-		34	시장권고 이행률	협력→경제 이동
-	-		35	사회적 약자 인권실태 조사 횟수(누적)	신규
52	생활임금 지급률(생활임금 적용대상기관)		36	생활임금 지급률 (생활임금 적용대상기관)	

〈제2차 계획 및 제3차 계획 환경 분야 지표 변화표〉

제2차 성과지표		비고	제3차 성과지표		비고
53	노후상수관 정비율		37	노후상수관 정비율	
54	CSOs 저류조 설치		38	CSOs 저류조 설치	
-	-		39	수질오염 총량관리(물재생센터 방류 수질 관리)	과제 13번에서 11번으로 이동
55	빗물관리시설 확충 개소	지표 삭제	-	-	
-	-		40	빗물관리 대책량(m³/hr)	신규
56	한강유역 통합 물관리 활동	지표 삭제	-	-	
57	한강숲 조성	지표 삭제	-	-	
58	자연형 호안 복원		41	자연형 호안 복원(km)	
59	민간자원단체 수	지표 삭제	-	-	
-	-		42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환경순찰 횟수	신규
-	-		43	수질검사 항목 수	과제 13번에서 11번으로 이동
60	서울 SDGs 체계 이행	지표 삭제	-	-	
61	(자원)순환이용률	기달성 지표	-	-	
6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14년 대비)	기달성 지표	-	-	
63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지표 삭제	-	-	
64	생활폐기물 감축률	기달성 지표	-	-	
6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단체) 수	지표 삭제	-	-	
66	녹색제품 구매율	지표 삭제	-	-	
67	교육 이수자수	지표 삭제	-	-	
68	친환경금고지장기준	기달성 지표	-	-	
-	-		44	(자원)재활용률	신규(지표변경)
-	-		45	중소기업 이하 규모 기업 종사자 대상 ESG 인력 양성 교육 참가자 수	신규(지표변경)
-	-		46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 추진	신규(지표변경)
69	홍수해 인명피해		47	풍수해 인명피해	※핵심지표
70	법정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반영률	기달성 지표	-	-	
71	에너지 자립마을 수	지표 삭제	-	-	
72	센터 방문객 수		48	센터 방문객 수	
73	온실가스 배출량		49	온실가스 배출량(만톤)	※핵심지표
74	기후변화기금 지출사업 편성규모		50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편성 규모(백만원)	
75	기후관련 국제포럼 개최 건수	지표 삭제	-	-	
76	수질검사 항목 수		-	-	
77	수질오염 총량관리 (물재생센터 방류 수질관리)		-	-	
78	연구기관의 교류·협력 횟수	지표 삭제	-	-	
79	나무 식재량	기달성 지표	-	-	
-	-		51	정원도시 서울 관련 조성된 동행매력정원	신규(지표변경)
80	산불 피해면적		52	산불 피해면적(만m²)	
81	자연생태보호지역 증감면적('14년 대비)	지표 삭제	-	-	
82	야생생물 증식 수		53	야생동물 증식 수	
83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면적		54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면적(천m²)	
84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화 여부	기달성 지표	-	-	

〈제2차 계획 및 제3차 계획 협력 분야 지표 변화표〉

제2차 성과지표		비고	제3차 성과지표		비고
85	공공임대주택 비율	지표 변경	-	-	
-	-		55	자원주택 공급 수(누적)	신규(지표변경)
86	대중교통 수단분담율		56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87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지표 삭제	-	-	
-	-		57	장애인콜택시 대수/법정대수 대비율	신규
88	미래유산 선정건수	지표 변경	58	미래유산 아카이빙 자료 구축 건수(누적)	신규(지표변경)
89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	사회 →협력 이동	-	-	
90	초미세먼지 농도($\mu\text{g}/\text{m}^3$)		59	서울 초미세먼지($\mu\text{m}/\text{m}^3$ /년)	
91	생활장원 녹화면적	지표 삭제	-	-	
92	MOU 체결 지자체 수(누계)		60	MOU체결 지자체 건수(누적)	
93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개소 수	지표 삭제	-	-	
94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확보	지표 108-삭제	-	-	
95	시정권고 이행률	사회 →경제 이동	-	-	
96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61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97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6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점)	※핵심지표
98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		63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	
99	시민참여예산액	지표 삭제	64	시민참여예산 비율	신규(지표변경)
100	공공와이파이 공급	기달성 지표	-	-	
101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기달성 지표	-	-	
102	컨설팅 자치구 수	지표 변경	65	지속가능발전 세미나 회의 개최 건수(누적)	신규(지표변경)
103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지표 통합	-	-	
104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누적)		66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누적)	
105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협력 사업 건수	지표 삭제	-	-	
106	위원회 회의 안건 수	지표 변경	6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누적)	신규(지표변경)
107	해외사업 신규 수주	지표 변경	68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신규(지표변경)
108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	지표 삭제	-	-	

별첨 2. 제6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역할	성명	분과	소속	비고
위원장	김태영	협력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부위원장	사득환	협력	경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경제분과 위원장	곽주영	경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회분과 위원장	손병덕	사회	총신대학교 부총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환경분과 위원장	조영준	환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협력분과 위원장	구철회	협력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지속위 위원	김덕파	경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병걸	경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박숙현	경제	지속가능발전학회 연구위원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박유경	경제	(주)굿모니터링 대표이사	
	양세훈	경제	한신대 초빙교수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유재은	경제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김혜정	사회	서울시 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송수종	사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연구개발팀장	
	신인철	사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민상	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옥	사회	서강대학교 교수	
	정연아	사회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황여정	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성환	환경	생태보전시민모임(대표)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박선아	환경	홍콩과학기술대학교(광저우) 조교수	
	박주영	환경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부교수	
	박현정	환경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이동호	환경	환경을생각하는사람들 공동대표	
	이미홍	환경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장	
	고재경	협력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차옥경	협력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상임이사	
	송인한	협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영미	협력	경희대 공공대학원 사회안전 전공 주임교수	
	이창용	협력	KLIP 대표이사	